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水) 本紙朝夕刊十面

紛爭에 對處할 英伊重大閣議

聯盟制裁對應할 伊首相所信披瀝

東阿遠征軍完備策採擇

伊重要閣議

【羅馬二十四日發電通】 쥬네브의 危局에 直面하야 伊太利가 取할 態度를 協議한 伊太利政府의 重要閣議는 二十四日午前十時부터 內務省에서 開會하고 뭇솔리니首相은 代表部에서온 報告에 基하야 聯盟의 情勢를 詳細說明한後 聯盟規約의 어떤條項(制裁手段)을 發動할 境遇 伊太利가 取할 態度에 對하야 所信을 披瀝할 重要協議를 行하고 다시 東阿遠征 陸海空軍을 完備하기 爲하야 各種方策을 採擇한後 來二十八日 閣議를 再開하기로하고 午後零時五十分에 散會하엿다

콤뮤니케發表

【羅馬二十四日發電通】 伊太利政府는 二十四日 閣議散會後 對聯盟問題에 關하야 左와如한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二十四日閣議에서 뭇솔리니首相은 二十一日부터 今日에이르기까지의 政治的情勢에 對하야 簡單히報告하엿다 伊太利는 五國委員會의 和協試案에 對하야 傳하는바와 如한 代案을 提示한 事實이업고 單純히 同委員會에對하야 和協試案을 受諾할수업는 理由를 口頭로써 說明한데 不過한것이다 去二十一日부터 今日까지에 이러난 事實은 伊太利政府가 秋毫도 變하지안헛다는것을 說明하고잇다 그리고 뭇솔리니首相은 聯盟規約의 어떤條項에 基하야 事後發生할수잇는事態의 發展과 如斯한 情勢下에 잇서 伊太利가 取할 態度에 對하야 檢討를 加하엿다

英閣議

外相의 表明한 既定策繼續決定

【倫敦二十四日發電通】 英國閣議는 二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 午後零時五十五分까지 伊에紛爭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行하엿는데 周知하는바에依하면 閣議는 호어外相의 最近情勢에 關한 說明을 聽取한後 滿場一致로 쥬네브에서 英代表가 取한行動을 承認하고 호어外相이 總會에서 行한 演說에依하야 說明된 既定政策을 繼續하기로 決定하엿다

現地事態急迫? 곤달伊領事館員撤退

【아디스아베바二十三日發電通】 當地伊太利公使館은 일즉 에디오피아政府에 對하야 곤달駐箚伊太利領事館員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와 에집트수단國境에 가까운가라하바트로 撤回함에 許可를 與하기를 要請하엿섯스나 아직許可를 엇지못하엿슴으로 드디여 許可有無에 不拘하고 늣드라도 今週末 二十八日까지에는 곤달을 出發하야 가라하바트로 向하라는 旨를 二十三日에 命令하엿다

英艦隊地中海集結은 自衛以外無他意

英外相對伊首相親書

【倫敦二十四日發電通】 駐伊英國大使드라몬드氏가 二十三日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하고 同首相에게 手交한호어英外相의 親書는 時節이 時節인만큼 重要視되여 잇는데 그內容에對하야 各種觀測이 盛行하고잇스나 그後判知한바에 依하면 호어外相의 親書에는 英國艦隊의 地中海集結은 自衛以外에는 他意가 업다는것을 强調한것으로 曩者 드라몬드大使가 스비치外務次官에게 한 同趣旨의 聲明에 對하야 外相自身이 保證한것이라한다

伊態度觀望的

【羅馬二十四日發聯合】 伊太利政府는 二十四日 國務會議에서도 態度를 決定하지안코 얼토당토안흔 콤뮤니케를 發表한데不過한바 英國政府와의 直接交涉에 多少의 希望을 부치고 暫時形勢를 觀望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뭇솔리니首相은 從來伊에兩國의 紛爭에 關한限 一切第三者의 介入을 排擊하고 聯盟理事會로부터 巴里會商을 通하야 終始一貫으로 獨自의 主張을 固執하여 왓스나 英佛兩國政府가 聯盟規約擁護決意를 表明하게 된 結果 多少 態度를 緩和하야 五人委員會의 和協試案을 拒否하기 前後부터 漸次 英伊商議에 應할 意向을 抱懷하게 되엿다고 한다 그리고 뭇솔리니首相이 直接 交涉에 應하게 된것은 顯著한 轉向에 不外하는바 歐洲政局今後의 動向은뭇솔리니首相의 意向을 中心으로 展開되리라고 豫想되는바 얼마동안 沈默의 煙幕속에서 極秘外交戰이 繼續될것이다

危機包含한대로 三國會商에 移行?

伊國의 態度若干緩和

【羅馬二十四日發聯合】 五人委員會가 和協工作을 放棄한 結果 歐洲의 國際情勢는 急轉直下로 破局에直面하리라고 觀測되엿스나 英伊兩國政府間의 直接交涉은 窮通의道가 스사로 열리게되여 英伊佛三個國會商의氣運은 漸次 濃厚하게되엿다 聞하면 英國大使드라몬드氏는 二十三日夜 뭇솔리니首相과의 會見에잇서 호어外相의 懇篤한書翰을 手交하고 特히 左의諸點을 强調하엿다고한다

一、英國政府는 何等伊太利政府에 對하야 敵意가 업고 兩國多年의 親善關係를 維持할 方針인것

一、但 聯盟規約에 基한 公約은 忠實히 履行하지안흘수업는바 그結果 英伊兩國關係는 最近에 多少 緊張을 示現하게 된것은 遺憾이다

一、伊、에兩國間의 紛爭에 對하여는 聯盟의 原則에 基하야 英伊兩國親善關係를 考慮하야 平和的處理를 希望함

以上드라몬드大使의 懇篤한 忠言으로 뭇솔리니首相도 從來의 强硬態度를 자못 緩和하야 自進紛爭의 特殊性을 說明하야 聯盟機構의 埒外에서 公正妥當한 解決을 期하기바라다는旨를 明하엿다고 傳한다 右會見結果 오래동안 英伊兩國間에 低迷하고잇든 惡氣流는 漸次解消되는模樣인데 붓을가추어 大英帝國主義를論難하고잇든 伊太利 各新聞紙도 四日에이르러 全部筆鋒을 거두게되엿다 勿論 英伊兩國政府의現狀은 아즉 打診模索의 範圍를 脫出치못하고 英佛伊三國會商 開會를豫斷할것은 刻下의 情勢에잇서서 尙早를 免할수업스나 大勢가 聯盟의 機構外에잇서서 直接交涉에 轉하고 잇다는것은 隱掩할수업고 伊太利政府의 代辯者도 二十四日午前 和協工作交涉의門戶는 依然開放되여잇다고 意味深長한 言明을 하고잇다

和蘭兵役期間延長

【海牙二十一日發聯合】 和蘭政府는 二十一日 正規軍服務期間을 現行一個年으로 부터 三個年에 延長하겟다는 旨를 發令하엿다 右實施에 依하야 實質的으로는 和蘭防軍의 擴張을 行하게 되는 것이다

機關說問題中心 重大閣議開催

政府軍部다 事前協議

【東京電話聯合】 美濃部博士處分問題를 中心으로 各方面에서 重視하고잇는 二十五日의 閣議는 樞密院定例本會議의 形便으로 午後一時半부터 永田町首相官邸에서 開會되엿다 當日午前中 小原法相은 岡田首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機關說問題에 對하야

一、美濃部博士를 起訴猶豫로處分한것과 金森法制局長官을 不起訴處分으로 決定한 經緯

一、右에 對한 司法省의 聲明

一、美濃部博士의 聲明內容

에 亘하야 詳細報告하는同時에 더욱

一、司法省의 處分의 妥當性

一、美濃部博士의 聲明及右聲明取消에 關한 小原法相의 聲明에 對하야 詳細報告하고 司法省의 處分은 어데까지 公正한 點을 强調하야 諒解를 求하엿다 一方 陸海軍兩省은 二十日來 兩省首腦部의 往來가 頻繁하야 今井陸軍軍務局長 吉田海軍軍務局長間에 緊密한 連絡을 圖하야 會見內容을 逐一 各其 所管大臣에게 報告하는同時에 兩省一致로 岡田首相 小原法相에게 어데까지 斷乎한 處分을 要求하려하며 이間에 介在한 在鄕軍人會의 態度도 極度로 硬化하야 川島陸相에게 重大決意를 促하고 잇슴으로 同日의 閣議席上에서 兩軍部大臣으로부터 强硬한 意見의 開陳이 잇슬것은 必然之勢인데 이에 對하야 小原法相으로부터

一、司法省의 聲明과 美濃部博士의 聲明이 背馳되는 問題

一、美濃部博士의 聲明取消內容

에對하야 遺憾한 뜻을 說明하는同時에 詳細說明하야 어데까지 司法權을 擁護하는 立場에서 處分이 妥當하다는것을 强調하고 諒解를 求할터인데 右에 對하야 軍部兩大臣을 理解식히기가 到底히 困難함으로 境遇에 依하야는 小原法相의 進退問題에도 波及하고따라서는 政局을 大混亂에 誘導할 憂慮가잇는바 同日의 閣議內容은 各方面에서 重大視하고잇다

府縣議員選擧에 政友會優勢

【東京電話電通】 今回의 府縣會議員選擧의 狀況及 結果에 對하야 各府縣支部에서온 報告를 綜合하면 政友會는 野黨的立場에 잇슴에도 不拘하고 到處에 黨勢를 擴張한 形跡이 歷然한바 目下 狀況에 依하면 最後의 勝利는 明白하게 되엿다 卽 今回에 改選할 二府三十七縣의 定員은 一千五百二十五名으로 前回의 選擧에잇서서는 政友六百五十二名 民政七百九十三名 其差가 百四十一名이엿스나 今回 選擧한 結果 無投票縣、이미 開票를 終了한 縣及 一部發表의 實績으로보면 政友는 非常한 伸長을 示하야 總數에잇서 府縣別에 잇서서는 民政보담 優勢인것은 거이 疑心할 餘地가업다 이제 各府縣을 分類하면

政友會의 優勢縣 群馬、岩手、靑森、山形、長野、石川、福井、靜岡、岐阜、千葉、和歌山、岡山、山口、香川、福岡、大分、熊本、鹿兒島、宮崎、愛媛의二十縣

勢力伯仲한縣 栃木、宮城、山梨、富山、三重、兵庫、高知、長崎의八縣

從來부터 民政이優勢한縣 茨城、福島、秋田、新潟、愛知、京都、大阪、奈良、鳥取、德島、廣島의十一縣

그리고 右情勢로보면 總數에잇서 政友會는 民政黨과의 從來의 差인 百四十一名을 補塡하고도 더욱 百名內外를 獲得할것은 明瞭한바 이것이 內閣에 對한 國民離反의 映證이라고 稱한다

國際裁判所

켈록氏辭職通告

【쥬네브廿三日發聯合】 海牙國際司法裁判所判事 켈록氏(元米國國務長官)는 同裁判所長 사ㆍ스트氏(英人)에 對하야 現下情勢에 鑑하야 國際司法裁判에 出席을 不得已中止하게된 立場에 서게되여 判事의 職을 辭한다고 通告하여왓다는 旨를 二十三日 聯盟事務局으로부터 콤뮤니케로 發表하엿다

王克敏氏

全國經濟委員會의 委員으로被任

【上海廿四日發電通】 政務整理委員會의 殘處理를 爲하야 南下한 王克敏氏는 二十四日 南京으로부터 來滬하엿는데 王氏는 今回 宋子文氏를 委員長으로한 全國經濟委員會의 委員에 任命되엿슴으로 미리宋氏가 計畫中인北平 經濟委員會分會設立件에關하야 協議한模樣인데 그動靜은注目되여잇다 그리고 經濟委員會는 北中開發을 爲함이라稱하나 一般은 日本의 北中進出을 阻止하기爲함이라하고 觀測하고잇다

始政廿五週年記念 博物館建設後援會

設立에對하야政務總監談

始政二十五週年紀念博物館設立에 對하여는 發起者一同의 趣旨와 計畫의 槪要等을 發表하엿스나 多幸히 各方面에서 甚大한 贊意를 表하야 續續寄附申請을 接하고잇는것은 實로欣快至極이다 總督府는 이것을 感謝하면서 銳意 一般의 期待에 副케하기에 努力中이다 압흐로도 더욱 널리民間有志로부터 醵出한 小額의 寄附金은 한데모아 總督府에 獻納하는것이 手續上便宜함으로 玆에 始政二十五周年記念博物館建設後援會를 設立하고 千圓以下의 寄附金은 同會에서 取扱하기로하엿다 大方各位의 御出捐을 希望하여마지 안는바이다

聯盟理事會 二十六日에開會

【쥬네브二十四日發電通】 聯盟理事會는 五國委員會의 報告를 受理하고 聯盟으로서 取할 行動을 協議하기爲하야 二十六日午前 開會하기로 確定하엿다

和協失敗報告書를 五國委員會採擇

二十六日理事會에提出하야

伊에紛爭問題는再次逆轉!

【쥬네브二十四日發電通】 二十四日午前十時四十五分(日本時間午後六時四十五分)에 開會한 五國委員會는 伊에紛爭和協工作에 失敗한 經過를 詳述한 報告書를 作成하야 此를 採擇하엿다 그리고 右報告書는 아마 木曜日(二十六日)에 五國委員會로부터 理事會에 提出될터인데 이結果 伊에問題는 玆에 五國委員會의 손을떠나 再次理事會로 移牒되엿는바 伊에紛爭 防止를爲하야 如何한手段을 採擇할것이냐는 오직理事會가 決定하게될터이다 그리고 右報告書에는 同委員會가 成立으로부터 和協試案을 作成하게되기까지의 經過를 述하는同時에 드디여 右和協努力이 失敗로 歸하게된 經過가 詳述되리라고 諒解되다

에官邊伊案을罵詈

【아디스아베바廿三日發電通】 和協試案에 對한 伊太利側의 强硬한 反對意見表明에 依하야 五國委員會가 드디어 그和協事業을 放棄하얏다는 報導는 에디오피아側에서는 全혀 意外의일로서 觀測으로 이를 對하고 官邊에서는 伊太利案에 對하야 如左한 罵詈를 퍼부엇다 伊太利의 要求는 全然受諾不可能의것이며 歷史上 가장 甚한 虛構의 一例를 보인것이다 伊太利에는 에디오피아에 縱斷鐵道를 敷設하는것을 許지안는다는대 領土割讓等을 말하는것은 참으로 우수운일이다 그런데 이러한案을 내면서 和協試案을 拒絶한다고 하잔코 代案인지 意見提示인지 라고 하고잇는것은 뭇솔리니伊首相이 엇지하야 局面打開의 途를 求하자고 애쓰고잇는 證左로 보지안흘수업다

討共增援出動中의 中央軍列車顚覆

死傷四百餘名(死者만二百名)

【上海二十四日發聯合】 中央軍의 軍用列車가 洛陽을 出發하야 陝西討共軍을 增援키爲하야 隴海線으로 西安에 向하는 途中 洛陽을 出發하야 얼마가지못하야 洛陽과 張茅中間에서 突然脫線하야 機關車、貨客車 六輛은 四十尺이나되는 谷間에 顚落되여 死者二百名 重傷者二百餘名을 내엿다 事故勃發과 同時에 殘餘의 列車도 顚覆되엿스나 多幸히 顚落은 免하엿다 現場에는 直時 救護班이 出動하야 뒷處理에 忙殺되여잇다 原因에 對하여는 軍及 鐵道當局에서 取調를 進行하고 잇는데 共匪軍이 中央軍의 陝西集結을 探知하고 警備薄弱한 틈을타서 線路를破壞한 結果라고 觀測되고잇다

南洋委任問題

랑게博士의 報告決議案으로

【東京電話】 九月十八日 國際聯盟總會 第六回 委員會에서 랑게博士의 報告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南洋委任統治 地域의 港灣修築에는 何等 軍事的 目的이 업다는 旨를 答辯하엿는데 聯盟은 日本의 答辯은 不充分하야 理解할수업다고하고 聯盟脫退國이 委任統治地域等의 事象에 잇서서 聯盟國과 均等의 待遇를 確保할수잇슬가하는 點에 關하야 論議中이엿던바 二十一日의 聯盟本會議에서 랑게博士의 報告決議案이 採擇되엿다 그리고 右報告案에는 均等待遇問題에 關해서는 一切言及하지안헛스나 그末尾에서 日本의 委任統治地域의 港灣修築工事는 委任統治委員會의 見解、當事國의 說明書를 特殊의 興味로써 기다린다고 하엿다 그리고 採擇된 決議案의 內容은 如左하다

總會는 受任國 常設委任統治委員會及 理事會의 規約第二十二條實施에 關한 事業을 諒解하고 受任國常設委員會及 理事會의 協力精神으로써 委任統治 制度의 遂行에 萬全을 期하기 冀求하는바이다

陸軍首腦部重大協議

【東京電話聯合】 二十五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開催할 閣議를압두고 川島陸相은 午前八時三十分 官邸에 土岐政務次官 今井軍務局長 大山法務局長 山下軍事部長等을 招致하고 閣議에臨하야 機關說問題에 關하야 重要發言을 行하고 뒤이어 協議를 遂하고 九時四十分 散會하엿다

米陸空軍擴張

五年計畫六個條提案

【華盛頓廿三日發電通】 近近比島軍事顧問에 就任할 米國陸軍參謀總長 마아더大將은 最近에 提出한 年次報告書中 米國의國防兵力及 兵態에잇서서는 目下最少限度의要求를 決定식힐程度까지 引上할 必要를 力說하고 米國陸軍及 空軍擴張五個年計畫으로 左의 六個條를 提案한것은 注目되여잇다

一、每年 八百機式을 五個年에 亘하야 合計四千機의 飛行機를 建造할것

二、現在使用하고잇슨 馬匹을될수잇는대로 自動車에 代할것

三、一切의 携銃兵에 最新式模範自動式銃器를 給與할것

四、一切의 野砲를 徹底的으로 改善하야 近代化할것

五、一切의 聯隊其他의正規部隊 守備隊에 完全한 高射砲設備를 與할것

六、正規軍及 自由軍의 兵力을 一個月支持하기에 足할만한彈藥을 豫備로 蓄積할것

人事・集會

▲安樂兼行氏(總督府圖書課)廿四日午後六時半別世 二十六日午後四時半美芹洞出雲敎京城分院에서告別式

▲宋昌根氏(平壤 山亭峴敎會牧師)入京人事次來社

▲金鳳圭氏(시에론蓄音器商會文藝部長)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五人委員會는 失敗로서 任務終了、理事會는 失敗한報告를 가지고 成功할自信이잇슬가。

◇英伊直接談判은 各自主張을固執할뿐、亦是顯著한 効果가 업다。

◇伊國의 侵略이 잇더래도 無抵抗으로 聯盟에呼訴하는 作戰만 繼續하라고 英國이 에國에 勸告。

◇무엇을밋고 聯盟을 信賴하라는 말슴인가。

◇祭祀뒤의 屛風이나 成服後의 藥方文격이면 可能할지도 모르되、

◇決定로 에國을 救할者는 에國自身과 에國民自身以外에 아모것도 아니다。

號外發行

靜岡縣朝鮮人水災事件으로 二十四日號外를 發行햇슴니다

冬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百圓資本으로文房具店을開業합니다
四錢切手添付하야申込하시는諸位에게案內書及型錄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二五七三番

秋冬帽子カタログ進呈
滿鮮向帽子品揃
大阪市北區空心町一丁目
河村善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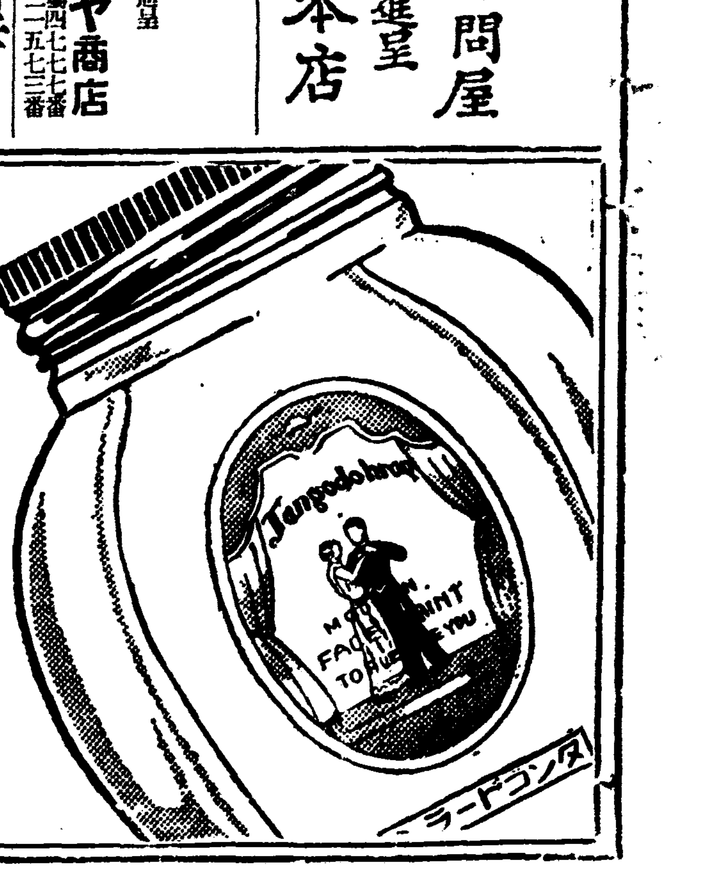
鋸製造卸 大五道具 鋸値段表進呈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電話東八一一六番 振替大阪七七六四七〇

조선文 相互通信
每月五日、十五日、二十五日三回發行
本紙의特色 長久한歷史와絶對的民衆의支持、正確한記事와有益한廣告의滿載
購讀料 一個月先金三十錢、半個年分先金郵料共一圓六十錢、一個年分三圓 振替大阪六八九五五九番
大阪市西區京町堀通一丁目四十五番地
本紙創刊大正十三年 大阪相互通信社

鹿矢 TRADE MARK
冬物品揃
毛綿メリヤス オーバセータ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製法 日、英、米、加、愛蘭專賣特許
有馬靑山太繩三醫學博士創製
免疫元 아ー오ー
結核 解說呈上
AO의治療的應用 肺結核、眼科結核、肋膜膜炎、皮膚結核、外科結核、泌尿生殖器結核、喘息等
特히肺結核의初期及眼科的結核에卓効잇슴은 이多數醫學大家들의實驗報告로써確實하다
AO의豫防的應用 潛伏結核、淋巴腺腫、虛弱體質、結核疑症等
特히腺病質並結核의疑心잇는學生과兒童에對하야서는꼭接種을試驗하야서 發病豫防、體質改善을 圖謀할것을 바란다
AO의診斷的應用 治療를兼한無害한診斷法
各號注射 大人用 一管及五管入 小兒用 一管及五管入
發賣元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 須美商店

美와魅力의近代化粧料
그化粧美는 佛蘭西人形의美와갓다
タンゴドーラン
탕 고 도 랑
졂은女性間에 白熱的好評이다!
內務省衛生試驗所 無鉛證明
열풀빗에따라研究한
タンゴドーラン七色 正價(各色一個)・五〇
全國百貨店・藥局・洋品店・化粧品店에잇슴
日本總發賣元・株式會社鳳鳥メール本舖(東京・大阪)



四百餘名의朝鮮人 食糧杜絶極困窮

靜岡縣三信鐵道工事地確報

餓死者만은아직全無

별한、정강현하의 수해지에서、로동중이든 조선로동자 천여명이 굶어죽게 되엿다는『신문련합』통신사의 급보를받고 이십사일밤으로 본사동경지국장을 정강으로 파견조사케한바 아래와가티 판명되엿다

【靜岡에서東京支局長金東進發電】 정강천룡천(靜岡天龍川) 상류 암전군좌구마촌(岩田郡佐久馬村)과 수지군성서촌 (周知郡城西村)과수와동 (水窪町)시내에 약사백명의 조선인은 일천명의 일본로공과함께 삼신철도(三信鐵道)공사장에서 종사중이엇섯는데 일주간 이상의 강우로 말미아마 천룡천은 속속 증수되여 한달에일천석가마니』 이상을먹는 인부들의 식량의 운송이 두절되여 목하 이고(二俣) 수와(水窪)사이와 좌구마(佐久馬) 성서(城西)사이의 륙로에 의하야 간신히 약간의 쌀을 어더서 기아를 면하고잇스나 호우는 더욱더욱 심하여저서 드듸여 교통이 두절될 염려가잇고 양도(糧途)가 끈허지면 치안상 불상사가 이러나리라고 현경찰부에서는 특고과 경부보이하 세명을 작일 현장에 파견하고 수와정경찰서와 련락하야 엄중경계중 아직 아사소동은업다 정강(靜岡) 수와정간은 오직 경찰전화가 통할뿐으로 교통은 전부 끈허젓다

河川汎濫進退不能 朝鮮人千名瀕死說

【靜岡電話聯合】 이십일밤부터 내리는 비로인하야 천룡천(天龍川)은 륙척내지 이십척이나 증수를보앗는데 천룡천상류의반전군사향촌(磐田郡山香村) 삼신철도선전공사장 (三信鐵道信用工事場)에서 일하든 조선인 토공 일천여명은 두세차려나 뢰호(瀨戶)로 건너가는 나룻배(渡船)를 끈키워 애지현(愛知縣)과의 교통이 두절되며 부근의 닭、도야지가튼것을 모다 잡어먹엇다하며 이대로 하로나 이틀을 더지나게되다면 전부 굶어죽으리라는 정보가 이십사일밤 정강현청(縣廳)에 들어왓는데 이미 칠팔명의 굶어죽은 사람이잇다고 전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사무소에는 공사용의 다이나마이트 수천개가 잇는데 이들 조선인이 불온한 형세에잇다하여 현고등과에서 대석(大石)순사가 이십사일밤급행하엿다 (此項號外再錄)

眞相如何未詳

【電通東京電話】 정강현하의 조선인토공사건은 각방면으로 조사한바에의하면 확실하다고 밋기는 어렵다 또 일천여명이나되는 사람이 굶어죽게되얏다함은 어떠케된 사정인지 전혀알수업다 (同上)

東京에連日降雨 浸水五萬四千戶

颱風은分裂、勢力衰退

【東京電話聯合】 련일 나리든 비는 이십사일엔 호우(豪雨)가되야 종일 퍼부엇기때문에 동경시내 구호(龜戶)와 그박게 침수가옥이 속출하야 그수는 오만사천호에 달한다

【東京電話聯合】 태풍은 이십사일 아침에 궁기현(宮崎縣)하에 상륙하야 동구주(東九州)일대와 사국(四國)남쪽등에 상당히 폭위를 떨내고잇든바 뢰호내해(瀨戶內海)그박게 발생한저기압(低氣壓)때문에 그날저녁에는 그세력이 급히약하여지려시작하야 이십오일 새벽에이르러 드듸여 태풍은 일본해(日本海)와 태평양(太平洋)에 갈려지고 그세력은 전혀약하야저서 자연히 소멸될모양이다

鹿兒島一帶도 被害莫大

船舶多數破壞

【鹿兒島電話電通】 이십사일밤이래퍼부은 폭풍우때문에 록아도(鹿兒島)현하 각지에는 상당히 피해가잇슬 모양인데 이십사일정오까지 판명된것으로는 록아도시내에서는 목하증중의 남

始政記念日압두고 今朝市內大檢索

各警察署에서五十餘名取調

十數名만은檢束中

륙군대련습(陸軍大演習)과 시정긔념일(始政記念日)을 압두고 경찰당국에서는 미리부터 해내해외를 경계중 이십오일새벽에는 경긔도경찰부의 지휘로 시내 각경찰서에서 시내에 잇는 각려관 음식점 유곽등 일체검색을 한결과 거동이 수상한 청년 약오십여명을 검속하얏다가 신원이 분명한 사람은 모다 석방하고 나머지 십여명은 속어엇 취조중인데 이후에도 비상경계상 불시에 각금각금 일체검색을 하리라한다

缺航中連絡船 今朝에就航

이틀동안이나 쉬엇다가 滯客도大部分消化

조선해협의 풍랑은 이십사일 이래로 차츰평정하야저서 결항중의 관부(關釜)련락선은 이십오일아츰의 제일제이편부터 취항케되얏다 즉이십오일 오전열한시반 부산출발의 제이편경복환(景福丸)과 동시에 하관을떠나는 제일편 덕수환(德壽丸)과 회불리시편으로 창경환(昌慶丸)이 각각정시출범을하얏다 이리하야 하관에체류되얏든 손님륙백팔십명과 부산에체류되얏든손님 오백사십명은 모다소화되얏다 다만 이십오일아츰 부산에 도착한 제사렬차의 손님만은 경복환에 다수용되지못하야 이날밤열한시삼십분에 부산발제팔편으로 덕수、창경의두배가 출발할터이므로 이때에 일소되리라한다

자사범학교 기숙사가 반괴되(破壞)의 창고가 파괴되고 또 열다 군부에는 간속군내지포촌(肝屬郡內之浦村)에 고조류(高潮流)가 밀려와서 출어중이어 선이 류실되고 대판상선(大阪商船)의 창고가 … 로 인축에는 피해가업다。

安息日敎會서 新築한療養院

十萬圓寄附도許可

독특한치료방법에대호평

부외청량리 안식일교회 (安息日敎會) 조선본부에서는 의료사업으로 순안(順安)과 경성에 병원을 설립하고 자연료법 (自然療法)을 주로하야 질병에 우는 만흔사람들을 위하야 일하는가운데 사회의호평을 바더오던바 조선에 자연치료를 보급코한 료양병원이 만치아니함을 유감으로 여이어 신마원의 거액을던저 대규모의 료양병원을 건축하기로계획을 세우고 작년가을부터청량리부근 조용하고 경치조흔곳에 건축공사를 시작 하엿는데 불원간 준공되리라한다 동병원은 안식일교회의 세계적 의료사업과 련합하야 동교회의 독특한 치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리라는바 동교회의 의료사업은 현재외국에서 대호평을받고 잇다고하다 동교회에서 신축하는 경성료양병원을 위하야 신청하엿든 기부금 허가원도 지난주월요일부로 허가가나와 모든경영이 순조롭게 나아가는데 그내부설비는 흔이 보통병원에서 볼수업는리상적 최신설비를 하게되리라고한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삼십명가량 수용할수잇고 자연료법은 수치료(水治療)전기치료(電氣治療)광선(光線)열(熱)안마(按摩)등을 사용한다고한다 (사진은 신축되는병원)

少年의暴行으로 九歲女兒慘死

犯人行少年今朝逮捕

昨日撓梁津六臣墓山에서

이십사일 오후부외시흥군북면본동리(始興郡北面本洞里)빈구죽송(濱口竹松)의 둘재녀식(二女息)가요(九)가 어대로나간후 밤이깁허도도라오지안함으로 그의부모들은소관영등포(永登浦)경찰서에 수사를의뢰하고 팔방으로 그의행방을 수색하든바 이십사일 오후네시경 의외에도 북면사무소뒤산 륙신묘(六臣墓)한엽헤 시체가되여 누어잇는것이 발견되엿다 이보고를접한 영등포경찰서에서는 곳계원이 현장에출동하는일방 경긔도 형사과에 보고하야 동과에서는 야촌(野村)형사과장 이견(一見)주임이현장에림하고 검사국에서는 촌전(村田)검사가 현장에 출동검시한결과 목에와 음부(陰部)에상처가 잇는것으로 보아타살로인정하고 범인에 관하야 여러가지로 수수문한결과 부면로량진리(鷺梁津里)재등헌일(齋藤憲一)(一七)의 소위인것이 대개명백하게 되여슴으로 곳취근각경찰서에 지명수배하고 엄중수색한결과 이십오일 오전열한시경에모처에 잡복하여 잇는것을 영등포서원이 체포하야 방금영등포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계속중인데 그는 마침내 범행을 자백하엿다한다 전긔『가요』의시체는대학병원좌등(佐藤)박사의 집도로 방금해부중이다 원인은전기소년이 발작적으로 소녀에게 폭행을 하든끗헤 그와가튼참사를 이르킨모양으로서 뜻하지아니한 소년의범행에 경찰에서도놀라고잇다

施政廿五年記念 郵便記念스탬프

체신국에서는 오는 십월일일 시정 이십오주년 긔념일을 축하하는 특수통신일부 『긔념스탬프』를 작성하기로 되엿다는데 십월일일부터 삼일간 각우편국소의 창구에 들어오는 봉서와 엽서에 찍는다한다

百餘名反滿軍 放火掠奪恣行

對岸臨江縣百草溝에서 中江鎭警察隊가擊退

【警務局着電】 이십사일오전한시경에 반만군인 애국군(愛國軍)과 청림(靑林)의 합체한약일백여명은 림강현백초구(臨江縣百草溝)를습격하고 민가에방화략탈을한후 한부대는 평북 중강(中江)경찰서장성(長城)주재소도방(都坊)감시소를 향하고 발포함으로 경계원은 곳응사하야장성주재소에 급보하엿든바 장성(長城)순사부장이하가 급행하야 협력하야 긔관총으로 응전한결과 약사십분후에 무장단은오지로도망하엿다한다

金村市內에 電燈을架設

【金村】 파주군 아동면 금촌리(坡州郡衙洞面金村里)는 그간 나날이 발전되여가는 신흥도시로 시민들은 아직전등이 업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든중 시내 유지제씨의 극력노력으로 지난달중순부터 공사에착수하야 금월말까지는 … 일경에 송전하리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猛烈한颱風이 日本九州東部로스처 今朝瀨戶內海中部로나와 中心이 若干弱하여가지고 七三六粍를 보이면서 北東으로進行하야 日本海로 나오려고한다 其他는 昨日부터 今朝는 關西地方은 風雨가强烈하다 日本本州一帶는 天候가險惡하고 海上은 風浪이甚하다 그리고 다음颱風은 千島의南海上에잇서 南進中이다 高氣壓은 오호ー츠크海上에 七六八粍、北滿에七六三粍를보이고 朝鮮은 高氣壓의線內에잇다 滿洲朝鮮은 大槪晴、東岸은曇이요 關釜海峽은 北風이弱하다

最高 二七度 最低 一三度四分 正午 二二度六分

寫眞은 全朝鮮 學生籠球大會 入場式

運動競技欄

中央基靑主催 學生籠球戰開幕

廿一校二百健兒의壯嚴한入場式

勞頭、遠來의新興校敗退

우리學生籠球界의 精銳들을 動員시켜 今年度의 覇權을 決할 中央基靑主催 第十一回 全朝鮮中等校及 專門校籠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十五日午後一時三十五分부터 同會館後庭코ー트에서 中等部十八個校와 專門部三個校選手 百六十八名의 壯嚴한入場式이잇서 昨年度優勝校 中東學校로부터 優勝盃를 返還한다음 大會長 尹致昊氏의 開會辭가잇섯고 選手一同을代表한延專主將 廉殷鉉君의 宣誓文朗讀이 끗난後 選手一同과 任員들의 記念撮影이잇섯고 競技는全州新興對 京城實業專修學校의對戰으로 幕을열으니 遠來의 新興軍 戰運不利하야 敗退하엿다

京實 55 (28 20 / 17 18) 35 新興

【中等校部第一次戰】 京城實業專修校對 全州新興學校戰은 當日午後二時부터 張權、金化沐兩氏審判아래 開始되바 結局五五對三十五로 京實快勝 (계입三十分間)

女子庭球大會 好壽敎逐優勝

東亞主催 第十三回女子庭球大會는 二十四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九個校參加로서 열린바 昨報하以後의戰績은다음과가트며 最後까지 奮戰한 開城好壽敎女高普軍이 京城第一高女팀을 無難히擊破하야 優勝旗를 獲得하엿다

◇準決勝戰

【一高女】勝【二高女】

×(顧森川) 0…4 (古神賀保)○
×(佐藤本山) 2…4 (矢藤部本)○
○(江牧川野) 4…0 (毛木利村)×

【第二라운드】

○(江牧川野) 4…3 (古神賀保)×

【第三라운드】

○(江牧川野) 4…0 (矢藤部本)

【好壽敎】勝【同德】

×(金慶任 白喜珠) 3…4 (張援煥 李妍伯)○
○(李昌圭 李武兼) 4…0 (姜奉恩 朴順天)×
×(千順任 秦南得) 1…4 (姜鍾官 吳國宴)○

【第二라운드】

○(李昌圭 李武兼) 4…1 (張援煥 李妍伯)×

【第三라운드】

○(李昌圭 李武兼) 4…0 (姜鍾官 吳國宴)×

◇決勝戰

【好壽敎】勝【一高女】

○(李昌圭 李武兼) 4…2 (顧森川)×
○(金慶任 白喜珠) 4…1 (佐本藤山)×
×(千順任 秦南得) 1…4 (江牧川野)×

【第二라운드】

○(李昌圭 李武兼) 4…0 (江牧川野)×

養正連十年制覇

第二高普軍은二位에

延專主催中等陸上閉幕

六種目記錄을更新코

延專主催 第十三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는 二十四日午前 九時半부터 市外延專運動場에서 열린바 이날夕刊마음까지의 戰績은昨報하엿거니와 投砲丸、千五百米、投圓盤、五千米決勝(今般大會부터新加入한種目)、八百米 千六百米繼走等 以上六種目의記錄을更新하야 中等陸上競技界의 큰收穫을거두엇다 그리고參加校中에서 最近놀라운進境을 보이고잇는 第二高普에서는 大會前日에 同軍의一員으로 活躍든安錫澤君이 不幸히도 身病으로死去하야 一同은 一齊히 喪章을 붓치고저 金道鍊君을 出場케함에는 同軍의心情을 同情하야마지안엇다

斯界의 常勝軍 養正高普軍은 八六點六六으로 斷然他校의 追及을 許치안코 드듸어 優勝을 누리니 이에 養正軍은 連續十年間을두고 同大會優勝旗를 차지하엿스며 遠來의 崇實軍의 飛躍的活躍는 今後의 活躍이 더욱 期待되는바

【四百米決勝】 1李敏弘(二高)五五秒二 2吳壽泳(養正)五五秒四 3白石恩(崇實) 4李景燮(養正) 5李演榮(養正)

【高峰跳決勝】 1洪永燾(徽文)二米七〇 2崔鵬爾(徽文)二米五〇 3金載榮(普成)二米二五

【五千米決勝】 1孫基禎(養正)一六分三〇秒 2李泰過(二高)一七分二〇秒 3金道鉉(一高) 4金道植(二高) 5李其萬(養正)

【四百米繼走決勝】 1養正팀(韓仲觀 吳壽泳 李景燮 金克煥)四七秒(本大會타이記錄) 2普成팀 四八秒四 3松高

得點表

校名	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走高跳	棒高跳	走幅跳	三段跳	投砲丸	投圓盤	投槍	四百米繼走	千六百米繼走	合計
1養正	5	5	7	3		6	5.16		4	3.5	11	9	5	10	10	86.66
2二高		2	5	5	7	6	0.48			4					3	32.48
3崇實	5		3	4	4		3		5	5			3			32
4普成	3	7					2	3			3,	1	4	6		29
5徽文	2						0.16	9	3		1	5	3			23.16
6松高		1		3	1		0.16		3	0.5				3	6	17.66
7徽新							4			2						6
8一高					3	3										6
9中央																0

【二百米決勝】 1李景燮(養正)二五秒 2金世勳(普成)二五秒一 3安定模(普成) 4林昌鼎(二高) 5劉萬鍾(松高)

【八百米決勝】 1李敏弘(二高)二分九秒二(本大會新記錄) 2白石恩(崇實)二分三秒四 3柳秉燮(松高) 4李演榮(養正) 5權五衡(養正)

【三段跳決勝】 1朴永俊(崇實)一二米三二 2金海燮(二高)一二米 3朴昇圭(養正)一一米七九 4朱景燦(徽新)一一米六八 5文錫珍(松高)

【千六百米繼走決勝】 1養正팀(李景燮 孫基禎 吳壽泳 金克煥)三分四六秒六(本大會新記錄) 2松高팀 3二高팀

京電5A 遞信4

京城實業野球聯盟秋期 리ー그의 最終日인 二十四日의 遞信對京電對球戰은 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遞信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五A對四로 遞信軍惜敗

遞信	0	0	0	1	0	0	0	0	3
京電	2	0	3	0	0	0	0	0	A

5A—4

府廳10A 鐵道3

府廳對鐵道戰은 當日午後三時二十四分부터 京城球場에서 鐵道先攻으로 開始되여 結局十A對三으로 府廳軍大勝

◇投捕 府廳(關、崔仲乙) 鐵道(山上、上田、稻垣、中村、會田)

府廳	1	4	0	0	4	0	1	0	A
鐵道	0	0	0	0	3	0	0	0	0

3…1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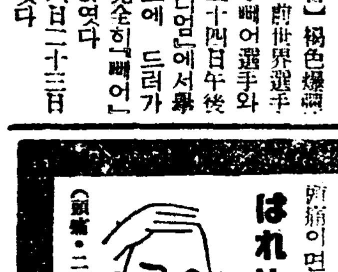
【勝敗率】

	勝	敗	比率
1 鐵道	3	1	○、七五〇
1 殖銀	3	1	○、七五〇
3 府廳	2	2	○、五〇〇
4 京電	1	3	○、二五〇
4 遞信	1	3	○、二五〇

그리고 鐵道、殖銀은 三勝一敗의 同率로 第一位決定戰을行할는지는 追後發表할터이며 十月中旬 臺灣博覽會 野球戰出場팀은 殖銀이 棄權하엿슴으로 鐵道팀이 朝鮮代表로 臺北에遠征케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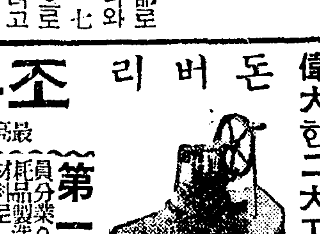
前拳鬪王 빼어 KO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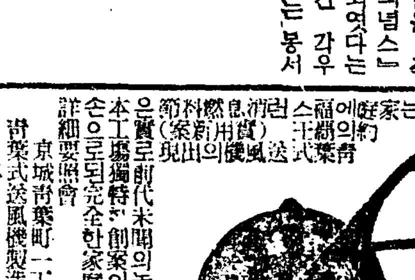
【뉴욕二十四日發聯合】 褐色爆彈 黑人「루이스」選手와 前世界選手權保持者 殺人能맥스·빼어選手와의 十라운드試合은 二十四日午後九時부터 양키ー스타디엄에서 擧行한바 結局四라운드에 드러가「루이스」選手에게 完全히「빼어」選手는 녹아웃을당하엿다 루이스選手는 지난六日二十三日에 巨人칼네라를 이것다


頭痛이면 はれやか로 곳낫는다 (頭痛·二日酔に) ¥0.31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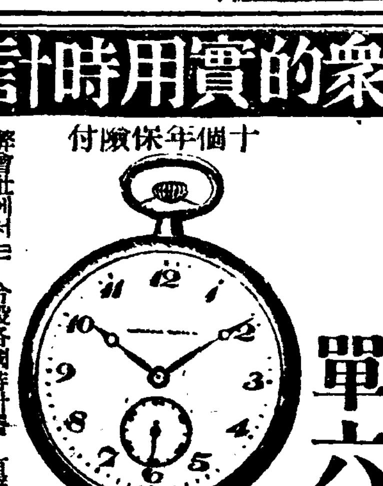
부인선약 무효면 돈을 도로드림 友利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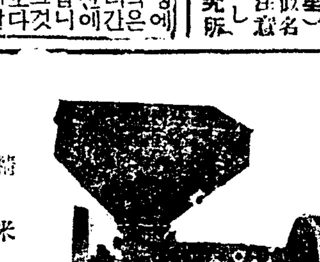
肺腹肋林宮 治病原理 日本理論藥劑研究所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進路 第一 第二 株式會社


돈버리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青葉鐵工所 京城青葉町一丁目一八〇 電話龍山二一七八番 振替京城二〇〇二三番

染料 원료물감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大衆的實用時計販賣 十個年保險付

◎時價二十餘圓品을 單六圓에!! 大量輸入大量販賣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精米機 京光式

李光淑鐵工所 京城府岡崎町七十一番地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賢

京城金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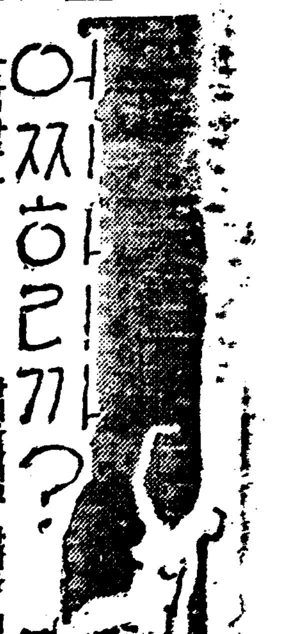
이노우에눈씻는약 井上目洗藥 속하고잘낫는 안질일절의량제 정상눈씻는약 井上目洗藥은如何한眼疾에던지絶對로神効합니다 一次井上家寶의眼疾藥을使用하신분은藥効의信用이多大함을말합니다 定價 拾錢 貳拾錢 參拾錢 本舖 井上清七

오케 이야웅打鈴

誠鶴 秋季景品付大賣出し 深見釀造場

第一劇場 團成社

어찌하리까?



고학할수 잇슬까요

問 저는당년 십팔세의 소년입니다 사변전에 시골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상급학교에는 가지못하게되엿스나 아모리해도 공부를 더하고십흔생각이 잇서서 엇던사람에게 학비를좀대여달나고 하엿더니 한달에륙원이상은 낼수가업다고하니 이 금액을가지고 한달을 지낼수잇슴니가? 그래서 고학을하려고 합니다。저는 정입생활도 하여 보앗고 가진 고생을 한일이 잇슴으로 어느정도까지는 고생을 겨듸나갈만한 체력 이나 의지를 가지고 잇슴니다。그리고 듯건대 경성에는 고학생회가 잇서서 서로부조하는데 매우 큰역할을한다니 그내용을 가르처주십시오 또한저는 조대(早大)중학강의록도 한벌 보앗슴으로 명년삼월까지 공부하여가지고 명년삼월에는 어느중학이던지 삼학년편입 시험을 치르고 십습니다。중학편입공부를 하려면 어느학교가 좃슴니가? 상세히 하교하여주십시오 (一讀者)

검정시험을 치르시오

答 당신의 공부하고저 하는 생각은 조흐나 지금가려서는 고학이란 전연 불가능하다고 볼수밧게 업습니다。그러니까 아모리검소한 생활을 한다기로 한달에 륙원을 가지고서야 엇더케 지나가겟소 그러고서울에잇는 고학생 회라는것은 올픈 회원끼리 정신적으로상호부조는 하겟지마는 물질상으로는 별로조혼하지 못한것 갓습니다。그러니 내생각갓해서는 당신처지로서는 무리하게 고학을 해서라도 중학교에입학 하려고하지말고 권위잇는 중학강의록을 열심히공부하여서 중학교 졸업정도 검정시험을 보시오。이것은 학무국에서 관할해서 매년봄경성중학에서 치르는것인데 이시험에 통과되면 중학교를졸업한사람과갓튼 자격이잇다고 인정받는것임니다。이시험에 관한상세한 규정은 당신이잇는 지방관청에 무러보시면 잘 알수잇슴니다。(一記者)

家庭

철도맛고 운치도잇고 밤은함부로먹어도몸에조타
젓떼기애기들에게 참조흔영양제
별미잇는 밤밥짓는법

밤이 사람들의 몸에 리한것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이지만 옛날부터 불로장생 하는약에 이 밤이드렷든것과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사람에 따라 인삼대신 황밤을 울써서 인삼먹은만한 효력을 나타내게하는것을 보아 우리는 무조건하고 밤이 우리몸에 리한것이라는것을 밋고십습니다

애기들이 젓떼려칠 림시해서 밥도 먹고 과자가튼것도 먹을때 밤을삶어서 대신먹여보십시요 살이포동포동찌며 여간조치 하게 자라지안습니다 하리적으로 밤속에는 무슨 성분이잇다 업다하는리치를 캐지안드라도 영양분이 만흔것은 어린애 기의 성장하는것을보아 넉넉히 알수잇는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타하고 밤을구어먹어도조코 삶어먹어도조코、말려서 속껍질을 벗겨두고 황밤으로 먹어도조치만 밤철이 다친요새 운치잇게 맛잇게 먹자면 역시 인풍잇가한 료리를맨드러먹는것이 나을것입니다。가령말하자면 밤떡을 맨드러먹는다거나 밤다식을 맨드러먹는다거나 밤약식을 맨드러먹는것도 조치만 요새

운치를 찻는다면 이 그들듯이 밤밥을해먹는것갓습니다。본시 풋밤은오래된밤보다 단맛이 적습니다。그러나 풋밤때에만 잇는 독특한향취가 잇습니다 이향취를노치지안케 료리를 맨드러 먹는것이 가을 료리의 운치가 잇고 가을료리의 별미가 될수잇는것입니다。

밤밥을짓는법——흔히보면 밥을짓네하고 밤을까가지고 쌀하고섯거서 그대로밥을 짓는데 이러고서야

여니때 먹는 팥밥이나 별맛이날까닭이 업습니다 그럼으로 밤밥을 지을때는 먼저 밤껍질벗겨서 끌는물에 데처가지고 거기에 진간장에 흑설탕을 약간 석거 그것으로 심심하게 간을 마처둡니다。그리고 밥을 지을 쌀은——가령백미보다도 찹쌀이 조흔데 경우에는 일본간장、진간장 흑은 일본간장 반분을 한데 석거서 숫에 밥물을 부을때가리 봅습니다 그러나 이 밥물대중은 술과 간장을 석거드리라도

보통때 와 마찬가지로 합니다。그래서 밥이 뜸들거든 먼저 삶아 노은 밤하고 한데 석거서 그릇에 담습니다。

이러케 밤밥을 지어도 조코 또 한가지 달리하는 방법도 잇습니다 밥을 미리 삶어두지안코 쌀한되에 대하야 소금홉한숫가락 엄분을 밥물가량너코 밥짓는 중간에 생밤을 밥우에언집니다 그리고 그우에 쩌다시마를

손벽만
예쁜 쩌저그우 떡떠노코것다가 돌이돌만할때 그다시마를 얼른거더버립니다 그랫다가 얼마지난뒤에 밥에밥에고루섞기도록 섞거가면서 밥을픕니다

◇

엇재든 밤밥뿐이아니라 무슨잡곡밥이든지 소금물을치든지 간장을치든지 해서 간을마처서 지어야 그맛이한결나는것입니다 그러고 적절하게、고추가루를 캐소금을처서하면 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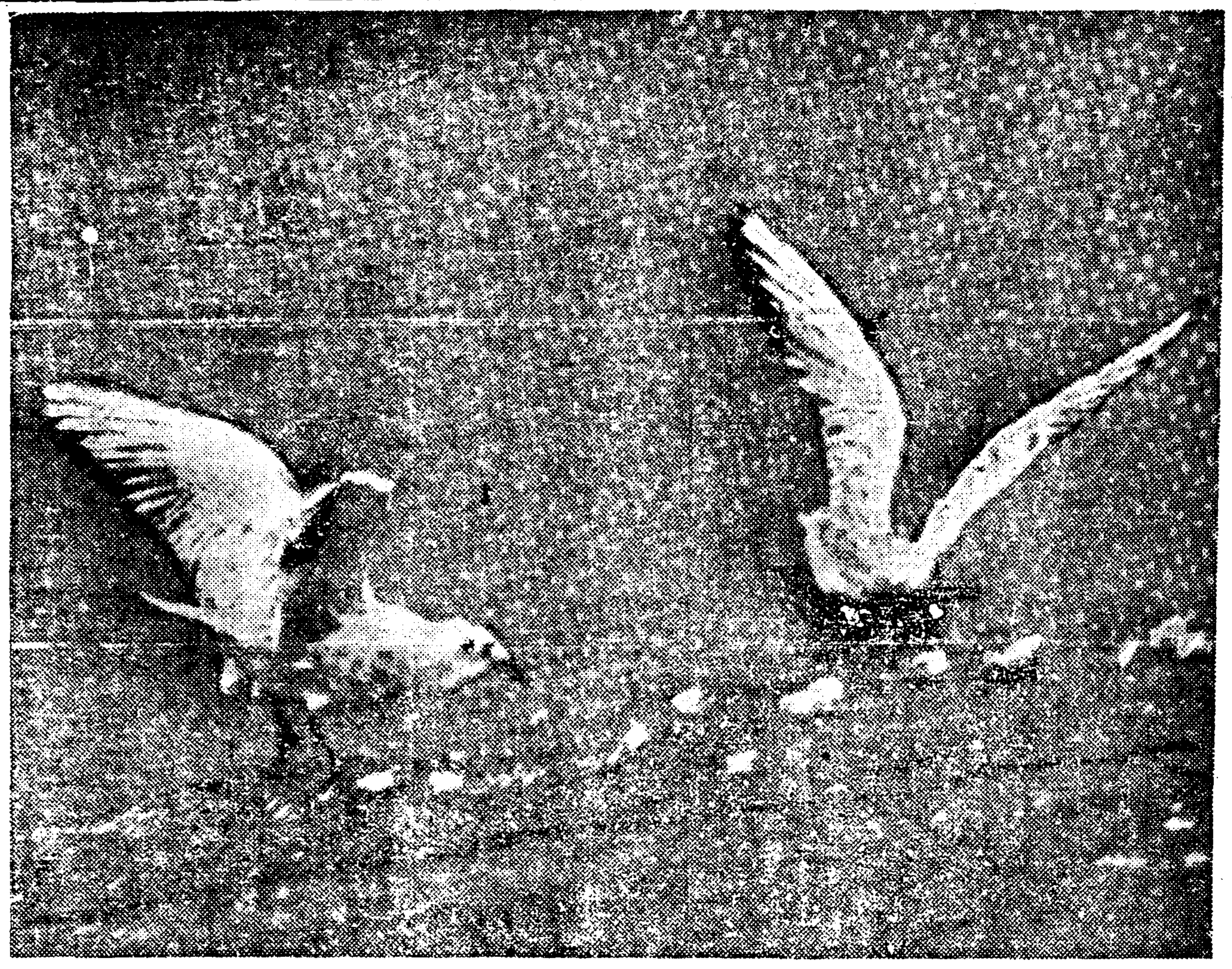
향취도
업서질뿐아니라 괴악스러케될것입니다 그럼으로 밤의 밤다운맛과향취에 상쾌될만한 약념을 치지마시고 약식이나과자맨드는기분으로 밤을지으시면 별맛이업습니다 즉 밤으로 반찬을 맨들수업느니만치 밤밥도콩나물밥처럼 되여서야 될터입니다

전신이가려워

問 저는 십륙세의 소년인데 지금 중학교입학준비중에 잇슴니다 매년 겨울이되면 전신이가려워서 재작년에는 약을먹고 작년에는 좀나앗다가 금년에는 다나흔줄 알앗더니 그때문인지 금년에 서 또다시 가렵기 시작하니 이러면 신체검사에 떨어질것갓습니다 그래서 무슨약을써야낫겟슴니가 속히남의울줄구해주십시요(仁川生)

答 신체가가려웁고 딱지안는병이 원체만흔니가 간단한말슴만으로는 엇더한피부병이라고 판단하기어렵읍니다 개선(疥癬)인지도모르니 위선 미치갈 이라는 약을구하야 써보십시오(大學病院小兒科 金晟鎭)

※ 九月二十六日부터 朝鮮劇場에서 『로스트·정글』上映中 朝鮮日報讀者優待券 一人에一枚限
優待料金 『上階』大人五十錢을三十錢 小人三十錢을二十錢 『下階』大人三十錢을二十錢 小人二十錢을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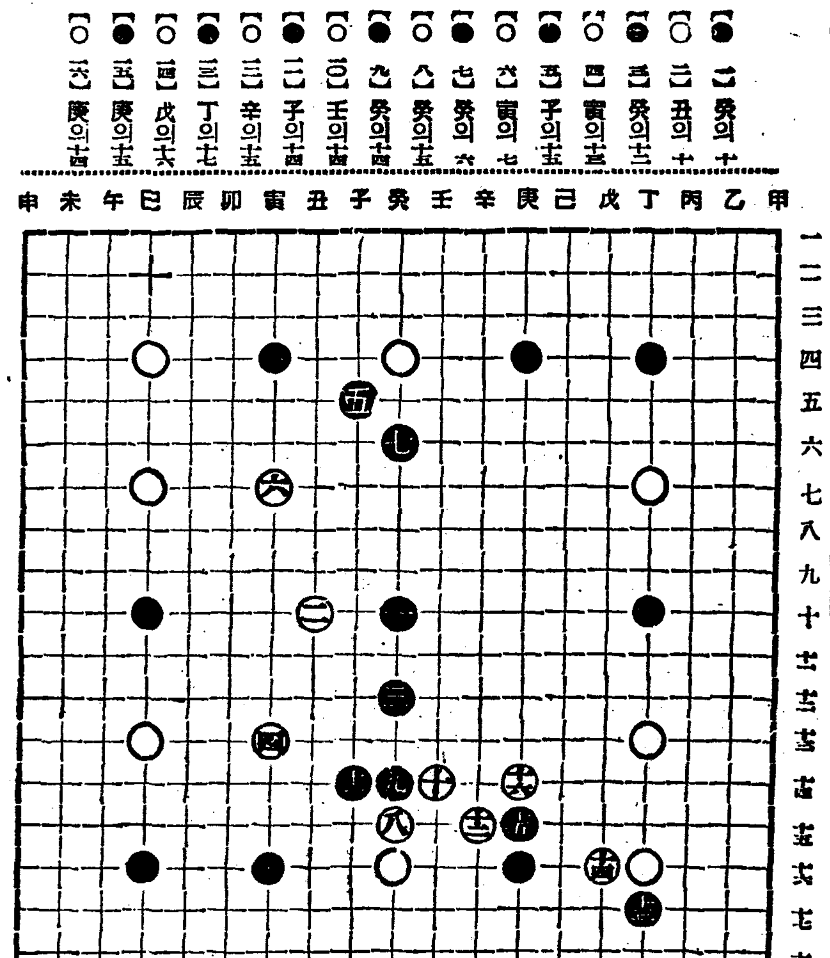


★갈매기★

圍碁對局譜 (本社主催)

─白 丁奎春 當局
─黑先 權五慶 秀才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蔡極文氏評 白이 丑의十으로 例點을 試用하니 黑은 例斜를 脫退하고 癸의 十二로 移着하야 新規를 作成함은 此亦奇門一方이다 黑이 子의 十五 癸의 十四로 雙飛하고 庚의 十六將 救護次로 丁의 十七로 厭着하니 白은 戊의 十六暴은 庚의 十五白은 庚의 十四黑의 連絡이 似多曲折하니 來頭手段如何를 拭眼一覽할지어다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5)
張德祚 作　安夕影 畫

꿋어서 맥처잇는 하얀 모래 알을 향화는 자동차에 올나안자 쓸쓸한 지국을남기며 꾸어시 달려간다 비스듬이 창밖에 기대여 밤풍경 힘것 경을 도라보니 영감이 눈을 감고잇다

『우리가 대체 어데가오』하고 향화가 올려다니 누구의손인지 크다란손바닥으로 가슴을눌러 목소리가 나오지안앗다。하도 답답하야 흉내로라도 말을해보려고 영감의 팔을 잡아흔드니 영감은 그의사내 인줄 알고잇든 것까지 전신이 식것은 땀에잣한 귀신이 엇다 『으으으』하고 그가 발버둥을 치자 버썩 눈이떨어지며 경혜 는 옥이혼자 우두허니 안자잇 섯다。

『아시 아즈머니 이제야 정신이 드세요』 계집애는 그만 얼러

내는 귀여운듯이 저것을 바라 보다가 경혜 옥이가 잇는것을 처음으로 깨달은듯이

『참 이사람 가리온 색시가내가 향화를안고 나오라니 울며 매달니는군 아마 해잇아안고 달 아날줄을 알앗나봐』

『정말 너무 미안 하군요』

『아니 인사보담도 어찌 놀납 든지 글세여기까지 가져다글쎄 고 위선 의사를 불으려보내지』

『편한 구경을하려니와다 이무 슨 봉변이람』

『허허 하하』하고 사내는 웃 섯다。

『내참 그냥 영가시는줄알고、혼이낫네그려 이다음은 넘어진 구경이거든 오지를말아』

『글세 오늘도 몸이고단한것을 ......』

향화는 여기까지 말하면서도 당 신을보려고 일부러나와든니」라 고 더붓처 매즐수는 업섯다。

저향화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 엇다。

어데서인지 수도물 흐른소리 가 쇠아─나며 변사의 영화 해설하는 말소리도 가닥 가닥 들니워온다

『여기가 어델까』

향화는 이러케 생각하면서 처 음으로 자기가 아까 극장의자 석에서 넘어진것을 생각해내엿 다。

돌아보니 방은 한간도 채못되 는 회장실 가튼 곳이엇다。몽 으로 돌닌 조고만 창으로부터 따가운 해ㅅ볏이 물결처럼 흘 너들어오고 정신이 날수록 찌 는듯한 더위가 악을쓰며 달녀 들엇다。

『아주머니 집에 갑시다』하고 옥은 두려운듯이 그의 팔에매 달니엇다。

향화가 일어나안저 머리를 매 만지려니 일본식으로된 미다지 가 드윽 열니며 흥운이 들어 왓다

『대체 웬일이시우』하고 사내 는 들고 왓든 물대야와 수건을 나려놋는다。

『참 미안합니다』

향화는 일본식으로 물어안저 머 리를 숙여보엿다。

『미안한것보담 넘우 오랜만이 요』흥운은 약간 낫출 붉히며

『글세 너지석에서 손님이 조 도를 햇다기에 달녀가보니 그 게 바로 우리향화군군』하며사

맛나기만하면 매달녀 가진 하 소를 쉬원히 좀 털어노흘수잇 슬줄 알앗든 그 사내의압헤서 이갓흔 냉냉한 대스구밧게나오 지안는것이 향화는 슬펏다。

그것은 자기의몸이 일정한 어 떤남자의 물건이 되엿다는 관 념에서 오는 어려움이엇스나 겻 테 어린계집애가 안자잇고 이조 숙한계집애가 돌아서면 쭝알쭝알 식모에게라도 본대로 듯는대 로 제절그릴것을 생각하니 나 오려든 말문조차 막히고 만것 이엇다。

『그래 괜찬소』

사내의 억센손길이 이마를 집 허줄때 향화는 전기에 찔닌것 가튼 충동을 느끼엇다。

『내가 일생을 맥길곳은 이 사 람박게업섯는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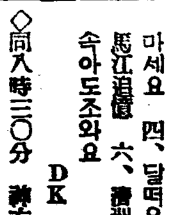
넘어진사람이 자기인것을 알자 안아 주고 냉수를 추겨주고하 는 사내의 심정을 알엇을때 감 격성인 그는 이 사내의 손길 과 바꾸어진다면 백만금이라도 아깝지안흘것가탓다。

『옛날이 그리워요』하고 게집 은 몃번이나 흥운의손을 쥐고 흔들엇스나 그의마음속을 흔드 는것은『아주 늣지안타』는 속 삭임이엇다。

『놀너오세요 꼭놀너와요』

향화는 집주소와 응접모양까지 자세히일너주고 의사가 오기전 급히집으로 들어와다。

라듸오



二十五日 (水曜)

◇午後六時 九月에난偉人의이야기『빌로느』 辛鳳祚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中庸의原理 李明世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一) 稻軟腐及調製 金雄珏
◇同八時 流行歌 一、新방아타령 二、廢墟의落照 三、울지마세요 四、달떠온다 五、白馬江追憶 六、滿洲아가씨 七、속아도조와요 金福姬 DK管絃樂
◇同八時三〇分 神方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池龍九 大笒 朴鍾基 細笛 丁元燮 杖鼓 趙相鮮
◇同九時 連續古談『淸朝大觀』(一) 申鼎言

二十六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民謠와喜歌劇 一、黑人民謠 (가) 피시랄드 (나) 望鄕 (다) 길로江 二、나폴리民謠 (가) 산타루치아 (나) 잘잇거라 나폴리 三、愛蘭民謠 흰菊花 四、露西亞民謠 뱃노래 五、喜歌劇 (가) 데아보로의노래 (나) 집거운生活 피아노伴奏 任永善 張飛
◇同三時一五分 兒童健康週間(三) 兒童과齒牙衛生 金益南
◇同六時 童話劇(全國中繼) 女洗淸 脚色演出 金鎭汀 出演 京城保育學校生徒
◇同六時二五分 趣味講座(第一日) 가을과古蹟巡禮=平壤과그附近의古蹟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實行講話(一) 參類播種 金雄珏
◇同八時 審邊歌外 一、時調 二、平수심가 三、平수심가 四、엮음수심가 五、審邊歌 白雲仙 鄭鼎紅
◇同八時三〇分 (大管絃樂)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序曲『에그몬드』...베트벤作曲 二、交響曲第三...부람스作曲 第三樂章포코알레그렛토 三、交響組曲...림스키고르사콥作曲『세에라자-드』第一樂章카랑다王子의이야기 指揮에마누엘·메테르 大阪放送交響樂團
◇同九時 連續古談 淸朝大觀(二) 申鼎言

曆

九月廿六日(木) 舊八月乙酉(大)廿九日
乙巳·火·斗·成
●祭祀·嫁娶·移徙·裁衣·動土·上梁·辰時開山·納財에吉함
▲白露八月(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家庭醫學

女性의대하증은 엇던것이며 그原因과害毒은?
─누구던지읽으시라─

●대하증의 原因과治療法

보통으로 부인병 부인대하지만은 부인병에도 그種類가만습니다 그中에도 제일만흔병이 대하증이라는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갓치 대하증이라는것은 女性의 生殖器에서 이상한물이 흘으는 것인대 사람을따라 或은 맑은 물갓기도하고 或은 코물갓기도 하며 또 피가섞기물이 흘으기 도하며 분량이만키도하고 적기 도합니다 이런차이는 부인의體質과 병세에따라서 생기는것입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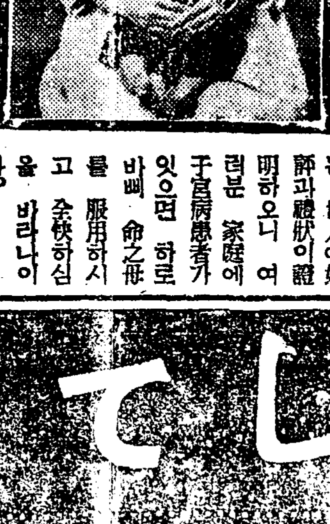
이무서운 대하증이생기는까닭 은 대부분 淋疾이전염되거나월 경때에 부조섭으로 무서운 細菌이 局部에들어가서 상처를내는 것입니다 맛치 手足을다친때미균 이들어가서헐고 고름이 나오는것 과가슴니다 원래 부인의 국부는 조직과 온도와 습긔등이 細菌 의 번식에 천연으로 적당한탓 으로 남에게 전염되만한 특별 한 긔회가 업다하드래도 미균 이 붓흔 손이나 조히나 옷이

그곳에 닷기만하여도 즉시 안 으로 퍼저들어가게됩니다 어린 까닭으로 남편에게 조치못한 性 病이업는집 부인에게도 이병이 잇스며 또는 월경긔에 이르지 못한 어린 처녀에게도 이가튼 병이 생기는것입니다

엇지되엿든지 이대하증이 흐 르게되면 벌서 자궁병이 잘복 된 증거입니다 발병당시에는 비 록 안색이 여전하고 몸이 건 강한듯하나 하로 이틀 날이 갈 수록 만성이되여 무서운 고질 이되며 차차 살이 빠지고 피 가 잘 돌지못해서 회색이 낫 부고 따라서소위 냉증이라는것 이 생기는동시에 병은점점깁히 깁히안으로들어가서 치료하기가 절대로 어려운데까지 빠지게될 니다 그러므로 평소에항상몸조 섭을잘하시고만일 이병에걸이거 든 초긔에즉시치료하여야합니다 그리고다소오래된병이라도 조흔 약을선택하야 자택에서성실하고 힘잇게계속하야복용하시면 틀림 업이완치할수잇습니다

이와갓흔子宮病을 治療하기에第 一適當한內服藥『命之母』가잇음 니다。이命之母로모든子宮病을全 治하시고愛兒를 出産하신 實例 는 世人에게 공개하는 바이오 라 賓病이 證明하오니 여 러분 家庭에 子宮病患者가 잇으면 하로 바삐 命之母를 服用하시 고 全快하심 을 바라나이 다

九年間신고하던 子宮病이 全快되야姙娠햇소



平北碧潼郡吾北面…金錫麟氏夫人

나는月經不順과 대하증으로結婚後九個年동안 신고를 하던中 千萬가지藥을 다써보앗스나 조금도 差度가업서서 비관을하던 中新聞廣告를보고 命之母가子宮病에 有效하다는 記事를보고最後로一次注文하야服用햇더니 얼골에 화색이돗고 원긔가나며 허리와 배압흔이낫으며 대하증이 차차줄고월경이고르게 나오더니 二三삭후에 姙娠하야 出産하고 不和하던 家庭이 平和롭게되니 命之母가子宮病에 絶對的有効함을信用하고 世上에 宣傳하는中 이올시다 (寫眞은 本人)

命之母는 全國有名藥店에서도 販賣하지만特히 本舖로 注文하실때는 藥代金을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또는 小爲替로 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適合한藥을 指定못하시는때는 病勢를 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 藥을付送합니다。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붓처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로 보내시는분 또는 藥舖로 申込하시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 자세히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 說明書를누구에게던지 無代進呈합니다

◎命之母의主治効能◎
婦人病良藥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腦痛肢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輪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	産前産後의婦	
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壹圓
一三日分 貳圓
二〇日分 參圓
三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 ● 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

歯を白く強くしてムシ歯をつくらぬ

クラブ歯磨
구 라 부

近者山岳史話 北岳山 (7)

定都傳說과 白岳神祠

湖岩

景福宮後에 未開의 荒丘芥蕪의 모양으로 一千三百尺의 素容에 빼난 北岳은 그本名이 白岳이니 이白岳은

三角山의 一條인 萬景臺로부터 뻐더나온 南麓이다 三角山이란 最高의 白雲臺를 中心하야 그北의 仁壽峰과 그南의 萬景臺를 이룸인바 萬景臺는 國望峰이라고도 부르니 鮮初에 無學이 이萬景臺에 올라 國都를 望見하엿슴으로 이런 名이 생겻다 하거니와 傳하는 말엔 無學이 萬景臺의 一脈을 밟아 南麓으로 가다가 碑峰에 이르러 『無學誤尋到此』의 六字를 삭인 石碑를 發見하니 이는 일즉 道詵의 세운것이다 無學이 이에 그길을 도리켜 다시 萬景臺의 正南脈으로 조차 바로 白岳에 이르니 三脈이 合하야 한평어리를 일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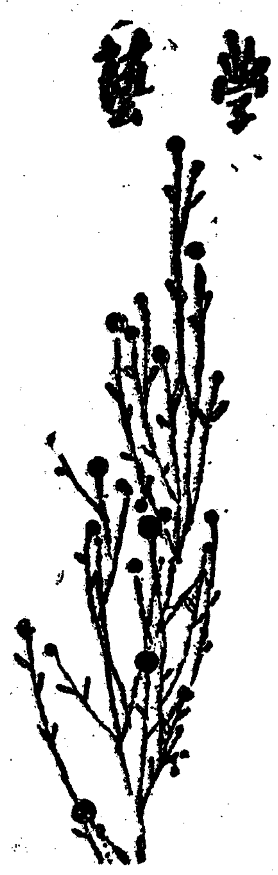
山水의 結論이 여기서 엇슴으로 그아래 宮城의터를 잡앗다한다 道詵記에 王氏를 이여 李氏가 漢陽에 定都하리라는 말이 잇서서 高麗中葉부터 漢陽에 伐李使를 보내고

白岳의 南에 李樹를 심어 그것이 茂盛할때는 반드시 모다 斫伐하야서 王氣를 눌르든 터 [illegible] 이 傳說은 어느程度까지 可信할는지 疑問이다 [illegible] 그만두고 이로부터 白岳神祠의 이야기나 좀 해보자 白岳山頂에 잇스니 그主神은 眞女夫人이란 女神으로 녜로부터

靈驗이 잇서서 사람들이 만히 가서 빌엇다 宣祖때 大詩人인 權石洲가 白岳神祠에 올라가 보니 眞女夫人의 影幀이 걸려잇는데 그女神에게 福을 비는 男女가 거의 連絡不絶하엿다 이것을 본 石洲는 慨然히 眞女夫人의 影幀에게 하는말이 『네가 [illegible]』

高麗의 [illegible] 女夫人이란 [illegible] 天帝의 딸로서 [illegible] 光海朝에 이르러 [illegible]

學藝



國際法의 法理論的基礎

──그 學說史的 考察에서──

(一)…… 申基碩

國際法의 學問的研究가 法律學의 다른 部門에 比하야 歷史가 짧고 研究의 方法에 잇서서 政治的 外交的 要求에 依하야 非法律的 要素가 介入하게된 故로 基本的 觀念에 잇서서 學者間에 만흔 論議의 對象이 되여왓슴은 勿論이오 未解決의 領域이 적지아니하다. 今日의 國際法學에잇서서도 그 基礎的 觀念에 關하는 法理論的 研究가 不完全한것을 볼수잇다. 筆者는 이 小論에 잇서서 此等의 困難하고 深實한 問題를 學問的으로 解決하려고 하기보담도 國際法의 基礎問題에 關하야 若干의 考察을 함으로써 國際法의 法律的 性質의 一面이라도 엿보고저하는바이다.

一

國際法의 規範으로서의 性質에 關하야 만흔 學者間에 論議의 對象이 되여왓다함은 前述한바와 갓거니와 이제 法律思想史的으로 學說의 變遷을 一瞥하여보고저 한다.

神學者 法學者 或은 哲學者에 依하야 自然法的으로 論議되고 研究되여왓든 것이다 『그로쥬-스』에 依하면 自然法은 正當한 理性의 命令이며 神의 威力으로서도 變更할수업는 普遍的 性質을 가진 自然의 規律이다 自然法도 時代에 따라 [illegible] 하지마는 神이라든지 道德, 理性, 事物의 [illegible]와 가튼 法以外의 要素의 基礎우에서 出發하야 法規를 論議하는것이며 結局 法秩序의 拘束力의 根據는 이것을 [illegible] 超經驗的에서 求할것이라는것이 根本的 見解이다 이 時代의 國際法은 恒常 自然法과 가티 問題되여왓스며 모든 國家에 對하야 다가티 適用되는 普遍的 法規로서 把握되엿다 卽 國際法은 超國家的 性質을 가지고 잇는것이며 國家의 意思에 基礎를 두는것이 아니라고 解釋되엿다 自然法學派의 國際法 構成에 關한 努力은 그다음에 이은 實證法主義 全盛時代에 잇서서도 그 餘光이 비치엇스며 最近에는 自然法의 [illegible]

自然法의 理論에 依하야 國際法의 超國家的 性質을 論하려는 傾向을 볼수잇다 十七八世紀의 形而上學的 主觀主義的인 自然法의 反動으로 十九世紀에 와서는 民族과 民族精神을 高調하는 歷史法學派와 實在法의 解釋運用과 經驗的인 社會生活을 重要視하는 實證法學派가 出現하엿다 實證主義的 法律學派는 法의 實證性 卽 經驗的으로 所與된 法律的 素材를 解釋하고 整理하고 體系세우는것으로서 根本的 任務를 삼엇다 『제-닉』는 實證性의 唯一의 基礎는 모든 事物의 實在性에 잇다 고하얏스며 『벨그봄』은 實證法은 思惟의 所産으로된 法에 反對되는 法 卽 그것이 업시는 그것이 現行法이 될수업섯다고 思惟되는 歷史的 過程에 依하여서만 實證性을 獲得할수잇는것이다 라고하엿다

固 이學派의 國家觀 法律觀에 依하면 國家의 意思를 高調하고 國家主權의 最高性을 固執하는 남어지 國際法의 超國家性을 否定하며 나아가서는 國際法을 否定하는 學者도 업지안타 『헤겔』은 國家의 意思가 모든 法律의 基礎가 되다 고하다 國家를 最高至上의 全體的 存在라고 認定하고 客觀的이며 無限의 意思인 國家의 意思는 그 全體의 目的이라는 考慮外에 如何한 法則도 認定지안는다 國家는 다른 아무것에서도 拘束을 밧지안키 때문에 自身의 締結한 約定이라도 一方的으로 廢棄할수잇는것이다 卽 國家의 主權과 抵觸하는 限度에서는 國際法의 法規性을 否認하려든것이다

다음으로 『에리넥』 其他의 實證法主義學派는 國際法의 法規性을 認定하면서 當然히 國家主權의 最高性을 高調하는 結果 國家自己制限說을

主 張하게되다 國家는 그 性質上 法律的으로 相互平等同格의 存在인 故로 國家를 拘束하는 法規는 恒常 國家의 合意에 依하여서만 卽 自己拘束의 過程을 通하여서만 規定의 可能性이 잇는것이다 이 學說에 依하면

國際法의 基礎는 國家의 同意에 잇으며 妥當性의 根據는 國家의 自己拘束에 잇슴으로 國家의 自己拘束은 國家權力의 自己制限의 觀念이다 法治國의 全體觀念은 統治權의 行使에 잇어서도 法的限界가 存在한다 國家의 目的遂行을 爲하야 別定된 法律秩序는 國家의 自由意思에 依하야 制作된것이다 萬若

交 通關係를 맺는것이 國家의 目的의 一이며 그 目的을 充足지안는것이 國家의 存在에 對한 侵害라고 한것가트면 國家가 他國과의 關係를 支配할 規範을 設定하는것은 國家의 本性的 要求라고 아니할수업다 國家의 人格의 本質로부터 생기는바이지마는 自由스러운 國家의 意思에 基因되는것이다 國家가 自己의 目的으로부터 생기는 要求를 意思에 對한 動機로서 採擇하는것은 國家의 自由스러운 決定인것은 勿論이다

政 治的 經濟的 原因에 依하야 漸次 緊密하여짐을 따라 國際間의 條約의 締結이 頻繁하야지고 따라서 國際法의 實證的 素材도 豐富하여젓다 實證的 國際法研究는 이 素材를 利用하야 分析하고 整理하야 槪念法學 分析法學에 입으로지마는 國際法의 根本的 基礎問題에 잇서서는 學派의 混在하야 고 非法律的 要素를 素朴한 自然法論을 벗어나지 못하엿든것이다

[illegible]

考證行脚 (1)

海西의名勝、白川

方鍾鉉

녜날 白川을 인절미의 特産으로서 널니 그이름을 알리웟스나 그래도 一個小邑에 지나지 못하더니 한번 溫泉이 솟아오르자 손님이 들끌코 市街가 繁華 해저서 一躍近代의 小都會로서 부끄럽지안케 되다. 요前者 내가 어떠한 機會로 白川을 가서 며칠 逗留하얏는데 그때 나는 白川의 今昔을 比較하야 그윽히 感歎한 마음을 禁치못하얏다. 그러나 詩人도 아니요 文人도 아닌나로서는 거긔對한 늣김을 가지고서도 表現의 말미암을바를 아지못한다 所謂 나의 工夫가 좀파한데 떨어진 책장과 씨

저전 문서를 뒤는데 잇스니 오족 그方面으로나마 今古의 變遷을 적어볼까한다.

먼저 이곳의 名稱이 오늘날 白川이라고 부르게까지된 由來를 간단히 찾아보고십흔것이다. 三國史記에

海皐郡高句麗冬彡忽一作音 忽郡 景德王改名今鹽州 雊澤縣一本高句麗刀臘縣景德王改名今白州

이라고 記錄된것을 보면 高句麗時代에는 그이름이 刀臘縣이던것을 우리가 알수잇지마는 그러나 그때에는 이

名稱에 白字가 붓지안코 刀臘縣이

라고 부르든 이 오늘날 白川이 그때 어떠한 關係로 되엿는지 알 수 [illegible]

특히 白字를 加한 名稱이 생기게된것이다. 다만 銀川이라는 銀字와 白州라고하는 白字와는 그두字中에서 무슨緣由가 聯結될수잇는듯한感이 서부터 비로소

白字 어라고하며 高麗初期에 들어 特折之蕃地... 郡(自京畿道錄本道)中宗二十一年陞爲縣令(以弑父故) 三十年復陞(邑號)銀川高麗成宗所定

所載

建置沿革本高句麗刀臘縣(一云雉岳城)新羅改名雊澤爲海皐郡領縣 高麗初稱白州顯宗九年屬平州(今平山)睿宗朝更山置興府後陞爲知郡事 仁宗二十一年 太宗十三年改今名 [illegible]

(沿革) 本高句麗刀臘縣 後改雉岳城 新羅景德王十六年 改雊澤爲海皐郡領縣 (三國史云憲德王五年雉岳縣) 高麗太祖二十三年改白州 顯宗九年屬安西都護府 毅宗十二年 陞知開興府事 (以勳臣李仁老之鄕) 元宗十年復以衛社功臣李仁植之鄕 [illegible]

위에 보이는 바 三國史記에서는 雊澤縣이라하든 이름이 駒澤 或은 雉岳이라 부르든 이 오늘날 白川이 되엿는지 그 [illegible] 이것이 [illegible] 것이다 아래와 가튼 事實이 記錄되어잇다 [illegible]

═北國의 가을═

(詩)……李庸岳

몰개고리소리 딸깃히 따르든뒤
여울마저 城돌이
차디-찬 山峽에 놀리기 시작하면
○
綠色의 微笑를잃은 꼬푸라이 늘을
가보지못한 南國을 憧憬하는데
○
멀구알이 씨듬어갈때
北國아가씨는
차라리「孤獨한가을」을 늣되기를 소원한다

言語의 要素

午前의 詩論技術篇

(4) 金起林

一四五四年(?) 구-텐베르그 에依한 活版印刷術의 發明은 實로 詩의 歷史에 決定的인 革命을 가저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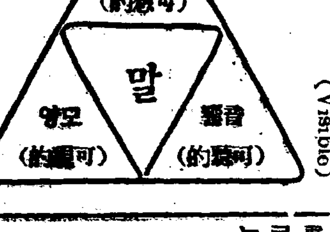
이때를 契機로 『노래해지든 詩』는

決 定的으로 『읽어지는 詩』로 轉落하엿스며 오직귀를通하야 듣든詩는 눈으로 보기도하는 새性格을 어더가지게 되엇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詩의 技術을 研究함에 當하야 생각되는 말은 벌서말하지 아니하고 써어진 말이며

다라서 그말의 機能을 分類 할때 文字의 『모양』 이라는 方面이 重要해진다.

西洋에서도 詩에 잇서서 이 文字의 모양乃至 그配列의 모양이 意識的으로 問題되기는 立體派 以後의 일이라 매우 그

發 見이 늣젓다고 볼수잇다 自國의 表音文字 以外에 支那의 象形文字를 오히려 더 만히 詩의 表現에 써로 쓰는 우리나라에서 이 文字의 모양에 대하야 지금까지 等閑하엿슴은 아마도 [illegible]



외 輸入이 늣진것과 그發展이 매우 더되데 原因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용 우리가 말의 要素라고 생각하는것은 그音響과 意味다. 그러나 우리는 이 音響과 意味에 『모양』까지를 加

加 해서 이것을 말의 세 개의 要素라고 부르 다

말 (Word) ｛ 意味(Sense)=可解的 (Intelligible)
音響(Sound)=可聽的 (Audible)
모양(Form)=可視的 (Visible)

單 이 音響과 모양을 한데너허서 形式 이라는 더關汎한 말속에 包含시키는 일도잇스나 나는차라리 便宜上 意味와 區別해 생각한다.

다 이個個의 單位는 勿論 個個의 말이 獨으로 詩에 參與하는 外에도 個個의 말의 結合의 여러가지 方式에 依하야된 句, 文句, 句節로도 獨自의 效果를 가지고 亦是 詩에 參加한다. 따라서 個個의 말의 要素를 土台로하고 여기에 文章으로서의 새로운 要素를 發揮하는것이다. 卽

文章

一、意味 (Suggestion 或은 Idea, Feeling, Significance, Thought.)

一、音響 (個個의 말의 音響의 連續, 反復, 重疊에서 생기는 音響自體의 效果·旋律·韻·律·音韻·韻脚·頭韻·等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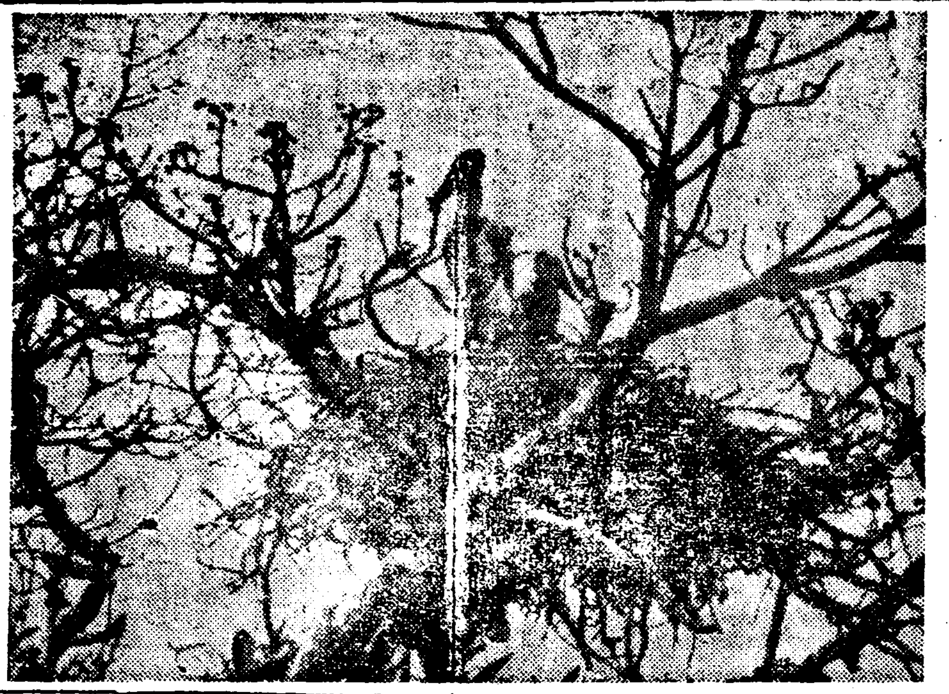
一、모양 (配列의 모양) 그래서 個個의 말과 및 그

結 合에서 오는 여러가지 要素가 詩的直觀力에 依하야 相互作用할때에 거기는 聯想, 象徵, 影像, 隱喩, 機智, 速度, 構成, 位置, 유머, 아이로니, 새타이어, 運動, 몬타쥬, 觀念, 舞蹈…等의 詩的效果를 發生시키는것이다

이래에 나는 意味論, 音響論, 形態論 의세方面을 各各 따로히 생각해보려고한다.

(그中에서 形態論은 「詩苑」 第一號 「現代詩의 技術」 속에서

略 述 하엿기에 그만두고 音響論은 今春九人會主催의 新文藝講座에서 「詩의 音樂美」의 題아래 略述하엿스나 若干의 修正을 加하야 再錄하려고 한다)



…찬바람불기전에…

秋燈讀書

勤務와旅行틈에

李瑄根

시골 서울로 왓다갓다하며 일정한 時間을 가지지못하는 나로서는 讀書할 時間을 가지지 못한것이 恨이오 그中에도 큰恨입니다 따라서 讀書도 公式가튼 一定한 方法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틈에서라도 讀書를 하여본다고 [illegible] 한 時間을 넘기게 되면 讀書보다 方面으로 [illegible] 해야 될 때가 [illegible] 下三番자리에 [illegible] 集中하게되고 日支外交史 [illegible] 을 [illegible] 中心한 [illegible] 讀書에는 [illegible] 듯고 故張志淵氏의 [illegible] 來有味잇는 內容으로 누구에게나 한번읽어보기를 勤하고 십흡니다.

海外短信

蘇聯科學者

『촐곱호스키』氏逝去

蘇聯의 著名한 科學者 K. E. 『촐곱호스키』氏는 二十日 『모스크바』 에서 逝去하엿는데 享年七十八. 氏는 航空術의 最初의 發明者이며또 遊星間의 連絡을 企圖해서 처음으로 로켓트의 實驗을 行한사람이라고한다.

『웨스터-마-크』敎授

近著公刊

『헤르싱키』大學敎授(哲學)로 婚姻史의 權威로서 世界的으로 有名한 『핀랜드』의 『에드워-드·웨스터마-크』敎授는 『西洋諸國의 婚姻』이라고 題目한 近著를 公刊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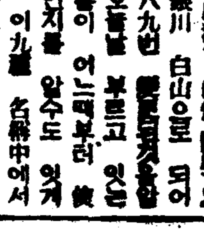
近著는 歐洲諸國의 婚姻制度特히 婚姻法과 婚姻生活等을 詳細히 硏究한것인데 그中에도 敎授가 特히 英國의 離婚에 必要한 敎式離婚이 어느나라보담도 말할수업시 남고 法律手續에 依한 正式離婚이 되는것은 富裕階級만이 되엿다는것을 指摘한 點은 興味가잇는것이다.

그야 어떻든 이冊은 적어도 人類生活의 婚姻을 이루우는 婚姻制度에 興味를 가진사람은 누구나 必讀의 良書로서 推薦할만한것이라고 한다.

溫泉

을 찾어온 사람으로서는 白川(白川溫泉)이 되는 이 山이 나 山에 눈에 띄이는것을 다 記憶하게 되것이나 이 山이 바로 雉岳山이것이오 이城이 곳 雉岳山城이를 우라는 엇거 들어 알수가잇다

소 白川이라고 溫泉上한것이 오늘날까지 그重要한 名勝古蹟이 잇는데 名勝은 溫泉뿐 아니라 古蹟도 [illegible]



新刊紹介

▲新生命 九月號 下關市本町十二丁目第一四四 新生命社發行 振替下關九四八三番 定價五錢

▲農民生活 九月號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發行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第一通信 第百六十八號 東京市麻布區笄町四一 第一通信社發行 振替東京五〇八四〇番 定價十金

왕한은 미래의일은 결정한것이 업다고 대답하야서 자기의 하는일이 혁명운동이오 장래의 목적이 또한 그것이면서도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얏다

창순은 청국의 정치가 부패하야서 일반의 백성이 도탄에 드렷스니 사여만 인구를 건지자면 혁명이 아니면 아니되겟다는 말과 왕한에게는 천품으로 혁명의 소질이 잇스니 지금으로 부터는 모든힘을 모아서 ○○에 종사하얏스면 조켓다는것을 권고라면 권고요 히망이라면 히망처럼 말을하얏다 그리하고 자기는 약한 녀자여서 직접으로 ○○운동에 종사할수는 업슬지라도 왕한이가 나라를위하야 땀을 흘린다면 자기는 수건을 받들고 다니면서 그땀을 시처주겟다는것을 간절히 말하얏다

왕한은 창순의말이 자기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사랑의범위를 뛰어나서 홀연히 나라를 근심하는데 미치는것을 듯고서 거의 놀납다지 아름답게 역엿다 왕한은 창순에게 무론 그만한 소질이 잇섯지마는 룩별히 어려서부터 고생으로 지나고 또는 중간에 해적 사건과 총잡의 사건 등 여러가지 역경(逆境)을 지난것이 더욱 혁명의 기

것은 창순은 순옥에게 비기서 왕한은 순옥을 련상(聯想)만 하람이 아닐뿐아니라 창순의일에 대하야 창순에게대한 모욕이오 자기의 허물이라고 생각한 까닭이엇다

창순은 여러가지 말로 왕한을 움직이고저 하얏스나 왕한은 혁명에 대하야 무관심(無關心)한듯 하므로 창순은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할수가 업섯다 창순의 빠른 눈과 명민한 관찰력(觀察力)은 왕한을 볼때에 왕한의 정신이 십분이라면 칠분 이상이 혁명적이라고 보앗스므로 가령 왕한이가 자기를 아녀자에게 대하야 혁명과 가튼 중대한일을 먼저는 경솔히 말하지 안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중심으로 뭇는 자리에 너무도 모르는채 하는것은 자기를 녀자라고 너무도 업슨역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조금 불쾌 한듯 하얏스나 그것이 자기의 신경피민으로 지나치게 추측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야서 두사람의 아름다운 우슴만이 계속되얏다

조금 조치못하든 일기는 개어서 서창을 비치는저 녁볏은 두사람의 마음을 명낭하게 하엿다

黑風 【139】

韓龍雲 作
金熊超 畫

海后(海道) 23

「그말은 떠하고십지 안습니다」

하는 창순은 다시

「미국에서 지나시든 일이나 자세히 말슴하야 주시오」

하고 여러가지 일을 차근차근이 무럿다

왕한은 미국에서 특별히 한일이 업고 공부를 하다가 화비관계로 중도에 뢰학하고 방랑생활을 하얏다고 대답하얏다

창순은 왕한이가 화비관계로 공부를 마추지 못하얏다는 말을 듯고 추연히 탄식하면서 당시의 청국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서도 화비가 업서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되는 형편을 말하고 자기도 화비관계로 공부를 못까지 하지못한 것을 스스로 하소연 하얏다 그리하고 다시왕한에게 장차 할일을 무럿다

분을 도아주엇다고 생각하얏다 그리하다 자긔에게 그러한 말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하야주는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참다운 뜻이라고 생각하얏다

그러나 왕한은 오히려 자기의 진정을 말하지 아니하얏다 왕한은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밋든 창순에게 대하야 미안한줄을 모르는것이 아니엇스나 ○○이라는것은 자기 개인의일이 아니오 여러사람의 일일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업시 비밀을 루설하지 말라는 당의 규률과 동지들의부탁이 잇스므로 아모리 밋고사랑하는 창순에게라도 말할수가 업는것이엇다

왕한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동안에 뭄난결에 미국에서 섬원이가 순옥에게 속는 생각을 하얏다 그리하고 마음이 압흘만치 그생각을 후회하얏다 그

病을곳치려면…먼저 胃腸을튼튼하게하자

食慾減退(식욕감퇴) 便秘(변비) 消化不良(소화불량) 脚氣(각기) 乳兒綠便(유아록변) 下痢(설사) 自家中毒(자가중독)

더위를 타서 발육이 조치못하게된때

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의발육(發育)이 조치못하고 아모리조흔음식물을 먹여도 잘살노안가는때는 그부모의걱정은 무엇보다도 큰근심일것입니다.

「밥투정」「반찬투정」을하면서도 잘먹지안는어린애들은 반듯이 밥맛을업게하는원인이잇서々그런것이니 이런때에는 일반영양학계서나 친문의사계에서추찬하는「비다민비」의진국인『에비오스錠』을먹이시면 밥도잘먹고 먹은것이모다살노가며 병에대한저항력이강하야저서 몸도 튼々해집니다. 그것은「에비오스」의 주요성분인「비다민 에이、비、씨、디、이」와「갈쉬옴」「크리코-겐」이외 이십여종의 귀중한합성교소(活性酵素)가 全的으로 전신에흡수되는싸닭임니다.

慢性胃腸病은 原因療法으로 곳치자

머리가늘무겁고 변통이조치못하며 배속이거북한이는 흔히 一時的듯는다고 위산 소화제 변비약등을 사용하시나 이것은 인이백이거나 더욱병을심하게하는수가만흐니 반듯이 근본적으로 위장을튼々히하야주며 위장의활동을민활케하야 自然的으로 변통을조케하고 몸전신의쇠약을 속히회복식혀주는「비다민비」의진국인『에비오스』로 원인료법을하여주시기바람니다.

즉「비다민비」가 부족하면 구미가안돗고 위장이 약하야지며 몸전신의활동력이 쇠약하게되는것이니 비다민비와 귀중한 각종의酵素의진국인 麥酒酵母에비오스로 치료하시사 건강의행복을어더주십시요.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各種粉末이잇슴
全道藥房에서販賣함

삿보로·아사히 유니온·에비스 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大阪 田邊商店

醫學博士 馬越藥學博士創製
農學博士 鈴木梅太郎 監製

エビオス錠에
(에비오스정)

EB-K-

石油會社設置로 卅作人耕地喪失

十餘萬坪耕地에依據生計하든 百餘家族의生途漠然

【元山】원산에 일천만원의 조선석유주식회사의 대석유제정공장이 건설케되어 그부지십만평을 지난봄에 십팔명지주에게서 매수하고 방금 공장건설도중에 잇다함은 긔보한바잇거니와 근장규모의 방대함은 말할것도업고 방금 매일사오백명의 로동자를 매일 오륙십전 로임으로 사용하야 공사가 착착진행되는데 명년이때에는 공장도 준공되야 직공 삼백여명을 사용하게되리라고한다

이러케 원산포하동전폭에 대공장이 자리를잡고 건설되는반면에는 이부지 십만평을 소작하든 삼십여소작인이 생명선을 일케되엿다는데 그중에는 중국인야채재배인도 십여명이잇다는바 이러케 오래동안 손익은 비옥한전답은 하로아침에 대공장부지로 화하게되니 십만평토지에 의존해살든 백여명소작인가족의 생활보장이 문제되리라고 한다

作業部의好成績으로 光明普校의盛運 有志의援助도深至

【元山】원산부광석동에잇는 사립광명보통학교(光明普通學校)에서는 실천을 통한 학리의 체득、다시말하면 학문과 직업의 완전한 결부석을 생도들게 알게하는동시에 빈곤학생의 학자보조를 겸한 일석이조의 리상밋헤서 작년구월부터 동교내에 작업부를두고 부라쉬바판(薄板)할저(割箸)등의 제작을 전문교사지도하에 동교오륙년생으로하야금 작업케하야 이래 일년간을 근기잇게 계속하야 일반에게 만흔호평을 바덧고 그생산고는 날로증가되야 판로개척을 위하야 동교학부형회장 허승하(許承河)씨가 멀리 함남북을 돌아단기는등 동교의 직원과 제품은 일약함남북 제시장을 풍마할지경에 일으럿스나 원래 빈약한 학교로서 원료를 다량으로 주문할수도 업고 재고품의 풍부도 도할길이업서 동교당국자의 고통거리가 되여잇섯든바 이소문을 들은 원산의유지 김영근(金永根)씨는 동교의 운용자금으로 수용되는대로 얼마던지 제공하겟다는 호의의 언약도잇고 또한 한치항(韓致恒)씨가 약천원정도의 운용자금을 대여주겟다는데 용기를어든 동교당국자는 위선 원료를 다량으로 구입하는동시에 판로의 강화를 도코저 동교 한호석(韓浩錫)교장이 직접 흥남조질회사(興南朝窒會社)당국을 차저서 동교제품 매입부라수천본정도의 구입승락을 어덧고 또한 영안농장(永安農場)에서도역시 동교부라쉬 사용의 언약을엇고 돌아왓다는데 이러케 학생의귀여운 손을 거처나온 상품은 비운에빠저든 동교에 일대광명이될것인동시에 빈곤생도의 복음이안될수업다하야 일반은 동교작업부의 욕입층천의발전을경하해마지안는다고한다

工費六千圓으로 上水道擴張計畫

【元山】원산부수도(水道)의 현재설비로는 급수인구 이만인을 넘지못하게 시설되여잇서 일일 십만립방척 전후의 급수능력바게업스나 현재급수인구는 이만을 훨신넘엇고 도일일급수량은 지난 녀름철의더운때에는 십이만립방척을 넘는일까지 잇서서 한동안 제한급수를 한바까지잇게되여 이현상으로는 대원산건설에 적지안흔 암영(暗影)이된다하야 이상수도의 설비확충을부르지즌바도 잇섯거니와 지난이십일일 원산부회에서 협의사항으로 이상수도의 확장공사의 제안이잇섯든바 만장일치로 가륙천원을 명년도예산에 계상하기로 되엿다는바 원산의 수도공급량의부족은 수원지의 수량부족에 기인함이 안이고 취수구(取水口)의 흡수능력의 저하에 잇스므로 이 취수구를 일개소 증설키로 된것이라고한다 이리하야 원산은 물고근에서 구출되리라고한다

吉林普校主催 聯合運動盛況

【新京】지난이십일일 길림보통학교주최로 제일회련합운동회를 동교교정에서 개최하엿는데 참가학교는 멀리교하(蛟河)로부터 강밀봉 구전 대둔 긔반가 왕긔둔 길림(江密峰、口前、大屯、棋盤街、旺起屯、吉林)합칠교로 오전팔시부터 각종경기는 시작되여 백열전을한결과 우승긔쟁탈대항리—레에 교하군이 우승하엿다한다

故金女史記念館 建築金調達次 映畵의밤開催

【開城】개성정화녀학교의동창생으로 조직된 정우회(貞友會)에서는 동교의설립자인 고김정혜(故金貞惠)녀사의 긔념관을 설립할 자금을 획득하기위하야 오는이십칠 팔량일에 부내고려청년회관에서 영화의밤을 개최하리라한다

些少한言爭끄테 父子斫殺한悖漢

取調段落、檢事局送致

【醴泉】긔보와가티 昇존대부의 닭이 자긔가구워노은 야채(野菜)밧헤 들어와 야채를 지밥은 다는 사소한감정이 도화선으로 말다툼하든끄테 격분이 일어나서 昇존대부 정주진(鄭周鎭)과 칠촌당숙 정맹석(鄭孟石)두사람을 낫(鎌)으로 처죽인 패손 탁수(悖孫鄭卓秀)는 그동안 례천경찰서에서 조사가 끗낫슴으로 지난이십일일에 일건서류와함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검사국으로 넘기엿다한다

漁組의統制機關 聯合會設置實現 諸般準備始히完了

【咸興】함남도내에잇는 십팔개어조(漁組)를 통제할긔관인 어조련합회(漁組聯合會)의 조직은 년부년약진을 거듭하고잇는 함남수산계를 위하여 자못필요를 늣겨오든것이던바 종래 각어조에서 금조련합회(金組聯合會)로부터 융자한 칠십만원을 식산은행으로 전환시기기에 다소곤난한점이 업지아니하여 동련합회조직에 일반의불안을 늣끼게 하엿스나 그도도당국에서 알선한결과 근일내교섭은 거이끗낫다고하며 인제는최후로 각어조에서 총회를열고 설립인가신청을 제출하기까지에 이르고잇다는데 추측건대 금년십일월내외경에 설치되리라고한다

荷物車顚覆으로 同乘者二名死傷 成川郡下의慘事

【平壤】이십이일 오전여덜시삼십분경 성천군 숭인면 창인리(成川郡崇仁面昌仁里)산중에서 화창(化昌)을 향하여 질주하든 평원자동차상회(平元自動車商會)소유 트럭 평남구백륙십삼호는 운전수 리근배(李根培)가 조종중 련결긔의 고장으로 놉히가 이십여척되는 언덕아래에 떠러지면서 차체는 대파하고 동승중의 동리 리관준(李官俊)(三二)은 부상하여 부근 병원에 운반하여 응급수당을 가해스나 절명되고 말엇고 운전수도 중상을 당하엿다한다

長淵記者團의 一回定期總會

【長淵】장연에잇는 각신문지국관게자로써 조직된 장연긔자단정긔총회는 지난 이십일일 오후팔시부터 본보장연지국사무소에 회집하야 좌긔와여히 본단집행부를 개선하고 제반사항을토의한후 연회로 자리를옴기여 화긔애애한중에 무사폐회하엿다한다

執行委員長 吳炳澤
庶務部 崔明燮 金演哲
財務部 金鍾玉
社會部 金承河 李琫熙
文藝部 金成律 金昌農
調査部 姜泰涉 朴恩植

◇決議事項
一、記事通信迅速聯絡의件
二、秋期講演會開催의件
三、長淵電氣에關한件
四、鐵道延長에關한件
五、乘車證交涉에關한件
六、長淵邑市場移轉問題에關한件
七、續奎煥女史幼稚園寄附金(設立費五千圓)事件眞相調査에關한件
八、月例通常開催의件
九、關員整理에關한件

第五回關西體育會 軟式野球大會 二十八、九兩日間에

【平壤】제오회관서체육회 종합체육대회의 일종목인 연식야구대회(軟式野球大會)는 본사평양지국후원하에 대회일인 십월오일을 압두고 이십팔、구량일간평양부청구장(平廳球場)에서 개최키로되여 준비에분망중이다 참가신청기일은 이십오일까지로 되엇스므로 그전에 신청키를 바란다고한다

南朝鮮씨름大會 空前盛況裡閉幕

【守山】경남 밀양군 수산에서 남조선 각희대회를 지난음력팔월십륙일부터 삼일동안 수산 시민주최 하남소방조 본보 수산지국 후원하에 개최한바 각지로 부터 모아드는 력사들은 수백명에 달하야 재각기 일등상을 어들라고 힘을 뽐내고 버티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엿다 근년에 잇서서 처음으로 수산에대회가 잇는이만치 관람자가 수천명에 달하야 수산유사이래 초유의 대성황을 일우는데 수상자의 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 池石奎(金海) 二等 朴二龍(三浪) 三等 張海龍(密陽) 四等 金在守(龜浦)

妻子살릴길업서 青年結項自殺

【咸興】함흥부산수정(咸興府山水町)일정목일번지 김종률(金鍾律)(三○)은지난이십일밤술이대취한대로 반룡산(盤龍山)송림중에서 허리띄를풀어 목을매고죽어버렷는데 이죽엄의리면애화를 들어보면 김종률은 일용로동자로 그날그날의 헐한 품삭으로는도저히 처자삼명을 살릴 길이업서 항상비관하든 끗테 그와가티 자살을 결의하게된것이라는데 매장할 비용조차업서서 시체를안고 반룡산 송림중에서 울며불며하는 그의처와 어린두자식들의 처량한광경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측은한눈물로 옷깃을적시게하엿다

그女子의一生 (217)

春園 作 夕影 畵

回光篇

「간호부나 될걸」하고 금봉의 집서업는 생각이 계속된다。못 사내들、더러운것이란 더러운것은 다 만지는간호부의 손이 그리워진다。그손은 잠시도 쉬지아니하고 주사를 노코 고약을 바르고 펄으나 천해보이던 간호부가 금봉에게는 무척 거룩해보엿다。제사회사의 손ㅅ등 터진 여직공、방직회사의 실을 잇는 여직공、겨울에 설어질하는 식모들、빨래하는 빨가케 언 손들。금봉은 무릅미테 너헛던 손을 다시 꺼내어보앗다。외손의 둘재、셋재 손ㅅ가락 꼿헤 담배ㅅ진으로 노라케 되엇던것이 인제는 거의다 벗어젓다。금봉은 그 두 손ㅅ가락을 코에다 대고 큼큼 맛하보앗다。구수한 담배냄새가 나는것 갓햇다。금봉은 담배ㅅ생각이 나서 입맛을 다시고 침을 두어번 삼켰다。근래에는 머리맛헤다가 담배와 재터리와 성냥을 노핫다가 눈이 번쩍 뜨기만 하면 먹던 담배다。

마장、담배、술、유욕——금봉은 제 몸이 왼통 이것으로 뱃것 갓탓다。그리고도 고운 모시 치마저삼。피까지도 뼈ㅅ속까지도 냄새나는 더러운것으로 꽉 찬것 갓탓다。

「깨끗、청정」

하던 법문 이야기가 생각킨다。서정희의 긔도하는 모양이 생각킨다。

심상태、김광진、조병견、최형식、손명규、아버지、기타 누구누구。모도 담배와 술과 돈욕심、유욕、교만、음모、시기、뒷공론。

임학재만은 안 그런것 가탓다。그러나 강영자、율남이 숙희。

「예수를 그냥 밋고 갈걸。도를 늘 할걸。」

「모도다 허사다!」

금봉은 불쾌한 뉘웃침으로몸을 비틀엇다。

금봉은 젓이 지는것 갓하서 젓을 만저보앗다。그러치만 인제는 젓도 말라붓헛다。아닷이가 생각혀서 금봉은 젓을 빨리던것이 오물오물 첫 안깐닙을 쓴다。정설을 구박한것이 뉘웃처진다。지금은 어미를일코 어떠케나 사는고?침모마자 일흐면 어되다 부처살고?

침모는 참양전하엿다。별로종교도 철학도 업는 모양이지마는 별로 흉평으로서 밤낫 바누질을 하엿다。어되 청승마즌데가 잇나、궁시긔가 잇나、하고 침모를 바라보면서 궁리하던것을 생각한다그 양전하고 얌전한것이 청승이라고 결론하던것도 생각한다。그는 연애를 하랴는 욕망도 업는것 갓햇다。

「연애!」

금봉은 옷 입설과 얇엣 입설을 번갈아 빨앗다。

「정말 사랑은 못해보앗다」

하는 결론을 어들 때에 금봉은 놀랏다。

「한번 잘 사랑을 해보앗스면 임학재허구 한번 잘 사랑을하고 살아보앗스면」

하고 금봉은 몸에 경련이 일드시 떨렷다。숨ㅅ결이 찾다。정신의 모든 신경과 선이 다 흥분하고 웅지기는것 갓타다。

그러나 다음ㅅ순간에 정신에 잇던 맥이 다 풀려나가는것갓타다。

「모도 허사다!」

하고 금봉은 기둥에 몸을 기대엇다。다리가 쑥쑥쑤시고 어깨가 아팟다。

「머리나 깍자。머리나 깍지」

하고 그러케 하로에도 쓰다듬던 머리를 만저보앗다。손명규가 그러케도 탐내던 머리다。금봉은 머리카락 몃올을 끌어서 눈압헤 대여다가 입에 물고 빨앗다。그것은 아모 맛도 업섯다。금봉은 혀로 머리카락을 배타버렷다。침에 저즌 머리카락은 금봉의 뺨에 찰딱붓터버리고말앗다。

「머리 깍고 이것 다 벗어버리고 거긔서 새길을 찻자。」

하고 금봉은 치마와 적삼을 쥐어뜻든 모양을 하엿다。금봉은 한번 기지게를 켜고 하품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침침한 방안을 들여다보앗다。금빗나는 부처님이 가느스름한 눈으로 금봉을 바라보앗다。

금봉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엿다。

동동동동하고 뒤ㅅ겻에서 사람이 나려오는 소리가 들렷다。

옷에 땀이 배고 이마에도 땀이 흐르든 중들이 태허대사의 뒤를 따라서 절마당에 들어서서 일제히 부처님을 향하야서 합장하고 허리를 굽힌다。

이날에 금봉은 머리를 깍갓다。(끗)

姙娠中에危險한 腎臟炎과脚氣

浮腫症잇는분은注意

姙娠하면 身體를너무 注意하는 餘念에 食物로부터 日常의起居動作까지 마치一種의 病者모양으로 特別히 攝攝하는분이 적지안타 姙娠이라고 하는것은 決코 病的現象은 아닌것이다 그러케까지 注意할必要가 업는것이다 단지平素와 틀이는것은胎兒를 養育하는 負擔때문에 疲勞를 過多하게늣기는 器官이잇스며 또는特히 만히攝取해야할 營養分이 잇슴으로써 그에對한 어더種類의 病에걸이기쉽다。

그런病中에 가장 만흔것은腎臟炎과 脚氣다 腎臟炎은 母體가 胎兒와 自己두사람分의 老廢物을 體外에排出하지안흐면 안되기때문에 腎臟이 平素보다 더욱活動하게되는것이 大原因이되야서 病을이르키기 쉬운것이다。

自己스스로쉬이알수잇는 徵候는 浮腫이되여오는것이다。때로는 그浮腫이 나타나지안코 不知中에 經過하야버리고 病이 進步되는일이 만타、그때에 비로소 알게되다고하면 어느듯뒤느진것이다、할수업시 人工流産을 行하지안이면 안되는境遇가 적지안타。또는解産期까지 가섯다하더라도 分娩期에 陣痛微弱(眠症)이 되야서 解産에困難을밧으며 或은分娩하더라도 産後의 出血이만허서 그때문에 母體의 生命을 줄이게하는 惡結果를 發生하는일이 不少하다。

脚氣는 胎兒의成長과 母體의 新陳代謝의昂進에依하야 비타민B가 激甚하게消費되야 體內에 이것이 缺乏을 招함으로써 일(起)게되며 手足에浮腫과 麻痺가 發現되야 動悸가 昂上하는것이 그主的徵候인바 手當을 겨울이하지안흐려고 하지만 出産에 强迫하게되면 心臟麻痺때문에生命을 일케되는 危險에 遭遇하게되며 幸으로 그危險을免하엿다 하더라도 生兒는乳兒脚氣가되야 母親은所謂血脚氣로서허리(腰)가 메지지안는때가만타。

그外에 姙娠中은、營養을胎兒에게 吸收식히는것과 膨脹한子宮이 胃腸을 壓迫하면 消化不良과 便秘를이르키기때문에 惡阻가 甚하게되며 心臟病과 結核이잇는분은 그것이 昂上되야 重態에 빠지게하는일이 적지안타。

그럼으로써 現在右와가튼 病의徵候가잇는분은 勿論 그러치안어도姙娠되고잇는분은 그러한病에걸이지안이할豫防的注意는잇서야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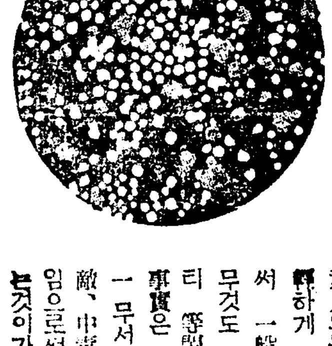
鹽分 卽 腎臟病에對한 注意로써는 腎臟에負擔을 더하기쉬운肉類와 鹽分이만흔食物을 避하고 便通을充分하게하는것이 가장必要하다 脚氣와 腎臟의發病을 防止하기 爲하야는 비타민B가 豊富한食物을攝取하는것도 必要한바 그러한意味로보아 姙娠中의 婦人에게勸하고십흔것은 여러분도 이미아실줄아는바의 『錠劑와가모도』의 服用이다 이藥에는 胃腸의消化의異狀을整齊하며 食物의 消化吸收를順하게하며 通便을 順하게하며 利尿를促進하야 浮腫을 除去하는等의 作用이 잇는酵素와 脚氣의特效藥인 삐타민B을 비롯하야 脂肪 카루슘 燐等의 姙婦와胎兒에 必須한 營養素가 豊富하게含有되고잇다

따라서 이것을服用하면 姙娠中에 걸이기쉬운脚氣 腎臟病의 豫防도될수잇스며 또는 胃腸의 活動이 活潑하게됨으로써 食事도進됨되며 姙娠中의 營養도充分하게攝取되며 惡阻로서 發하게되는 症勢가튼것도 豫防할수잇스며、通便은 規則的이되야 一定化하게되며、姙娠中에는 特히害가되는便秘도防止하며、그效果는 各方面에미침으로써 十個月의姙娠期間을 無事하게 經過하야、發育이良好한 어린애기를 보실여고하시는분에게는 꼭勸하고십흔일이다。

어린애기의腸炎과 自家中毒症을警戒하라

夏季로부터 秋節에의變態的氣候는每年固定的으로 幼兒의死亡率을 놉호게하는것이다 特히 生後七八個月부터 一年과 二三個月을經過하기까지의

幼兒 卽時期로서 母乳以外에여러가지의雜食에로變하기 始作할때에어린애기는가장危險하다。이러케乳兒에게무서운病은、第一腸炎、다음으로腸自家中毒症이다。


疫痢患者의糞便을培養基에分離培養한、三日後의所見

腸炎의症狀은엇더한것인가하면、그于先普通下痢로부터始作하야、多數에粘液便과血便이混合되야、그의熱이잇게되는것이지만、이것은素人의눈에는아조輕하게 보임으로써 一般으로는아무것도 아닌것가티 等閑히녁이는 事實은 乳兒가第一무서워하는 大敵、中毒症의前條임으로써 注意하는것이가장必要하다。

이런腸炎을 一週間쯤 放置하여두면 여름은 漸次로 乳兒의消化器管의水分缺乏、아루카리缺乏이라고하는現象으로써、醱酵素가生기며、따라서消化吸收作用에異常을이르킴과 同時에、食物은모다胃腸內에 異常分解를식혀

有毒 物質을生하며、여기에死亡率六十퍼ー센트以上이라고하는、무서운腸自家中毒症에걸이게되는것이다。

幼兒들이、고ー히직게기와가튼것을 마하든지、視力이衰하야 不安한때문에、闇中을模索하는것과 가튼때에는、病이 相當히 甚하여진것으로 알지안으면 안된다 이腸炎、及腸自家中毒의豫防으로써 于先무엇보다도 食物의選擇에注意함과同時에、胃腸의機能을根本的으로 强化식히는것과가티하지안으면안된다。卽酷暑期節에는 特히더우注意하야 腐敗키쉬운物은勿論、乳兒에게맛지안는食物은 되도록히避하는一方『錠劑와가모도』와가튼藥劑에依하야 腸炎消化不良等의原因이되는

胃腸 의 虛弱을 트튼케하며、食物의 消化吸收를 잘하는것이가장 必要하다。

이『錠劑와가모도』에는 食物中의 諸榮養成分을 消化吸收식히는 諸種의 酵素를 含有하야、弱하기쉬운 乳兒의 胃腸機能을 强化식힘과 同時에 中毒症의 原因되는 腸內를 殺菌、制腐식히며 中毒物質의生成을 防止식히는 作用도잇스며 또는脂肪 아미노酸 各種삐타민 누구레잉 리진 카루슘等 乳兒의發育强化에 必須한 榮養素를 數多하게 含有하고잇스므로써 이것을 平素로부터 아해들께 服用식히면무서운腸炎과 中毒症의 豫防이되며 또는 이미症候를發現한아해들께는 治癒를 促進식히는 優秀한 效果를 가지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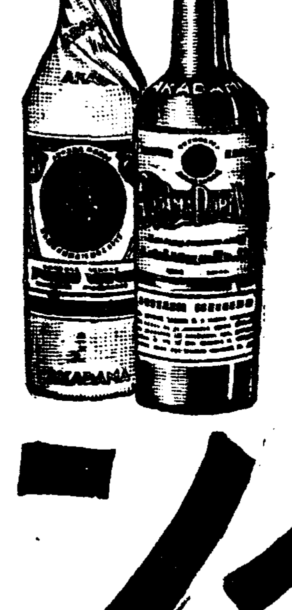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際 榮養と育兒の會로부터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 一日數錢에不過한廉價로서 發賣되고잇다 近來그聲價를利用하야 效果에 疑問되는類似品을 推薦하는 藥店도적지안는 模樣인즉 注意하라。

젓이잘나고 弱하던애기가든든하게

(高知) 小島厚子

나는 今年二十三才로서、昨年十一月三日에 男兒를安産하엿다 (中略)半個月쯤지나서 웬일인지젓(乳)이안나고、折骨이 튼튼하게생겻든어린애기가 점점衰하여젓다 이것은 어머니의 食物에關係되는것이라고 生覺하고、젓이 나게하는데、퍽조타하는 魚類와、野菜等여러가지를 먹어보앗지만 效果가 업섯습으로、나는 나날이여위여가는 어린乳兒를보고퍽으나마음이압헛습니다。어터날意外에××新聞에서『錠劑와가모도』의 廣告가눈에띄엿다(中略)하기에、一次六錠式三回服用하고、또어린애기에게 乳汁中에『錠劑와가모도』를 粉碎하야 먹어엿습니다。그리하야 十二月上旬부터 젓이나기始作하얏다。그런데 牛乳와 玄米스ー푸等은어린애기의입에 맛지안음으로 때로 無痢하며、或은便秘로 困難밧든 어린애기의 通便은 퍽軟便을 보게되여섯다(中略)내가 젓이안나기때문에어개(肩)가빼근하고다리가붓고、頭痛이나는것이、快히나앗습니다(後略)

腸チフス 絶對無害・內服豫防劑
ヘテロゲン 一人分排錢
注射不要 世界의的發見
類似品이잇스니 ヘテロゲン이라고指名하라
東京市芝公園・同仁製藥株式會社



血과肉이되는
天然甘味
藥用포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 도 와 인

大景品總當選!
各等共히 一品宛贈呈
●一等・婦人紋服地冬物・紫檀製茶棚・曲木應接セット・服洋タンス
●二等・小袖簞笥・洋食器セット・正絹丸帶 桐胴丸火鉢
●三等・婦人用旅行鞄 子供用勉學机・簿記台 水屋
●四等・子供用寢台・食卓・衣桁・婦人持洋傘(絹張・晴雨兼用)
●五等・メリヤスシャツ・化粧鏡(婦人持・携帶用)
●方法 赤玉포ー도와인의包紙의레ー벨三枚와口金揮(鍋製)의上部一個를一束하야 레ー벨의裏面에住所氏名을 明記하야 買上店又는左記에 付送하라 (郵料는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付할事)
()送處 大阪市東區住吉町 壽屋サービス係
◆應募者全部에藤澤樟腦贈呈

いよいよ 今月 30

風水害續出로!

六千萬石以下說
地方的大凶作念慮濃厚
悲觀되는農省管內作況

【東京電話聯合】八月十五日現在의 農林省調査米作況은 六千萬石의 收穫이 豫想되엇스나 그 後의 天候不順과 그後 東北方面의 早冷으로 漸次悲觀的으로 觀測되어 六千萬石臺를 割下하지 안을가 觀測되고잇다 그리고 九月二十日現在의 收穫豫想高는 今月末發表될터로 果然 六千萬石을 維持할는지 될는지 農林省內에도 樂觀 悲觀의 兩說이 잇는바 關東으로부터 東北 特히 太平洋岸의 作況은 極히 不良하야 地方에따라서는 昨年에지지 안는 凶作이 念慮되여 全國的으로 볼때 平年作도못되고 第一回豫想보다도 第二回豫想이 나버 實收에잇서 六千萬石을 割하는 數字가 나타나지안을가고 觀測되는터 이라한다

九州에颱風襲來로 減收百五十萬石?

【東京電話聯合】東北地方의 早冷으로 相當한 減收가 豫想되고잇는데다가 또 九州에서는 二十三日來 颱風이 襲來하야 이 方面의 作況도 念慮되게되엇다 이颱風의 農作物에 對한 影響은 아직 明瞭치안흐나 熊本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颱風襲來로 減收百五十萬石에 達하리라고하야 全國의 收穫高로보면 그리 큰量은 아니나 他各地모다 作況이 不良한 때이니만큼 이颱風에依한 被害는 相當히 市場에 影響되리라고보인다

量米飢饉益深刻 第二回賣却期待
政府는不必要로觀望

【東京電話聯合】米價는 作況悲觀說은 去益强調를 보하야 中央과 地方을 通하야 糧米飢饉은 逐日深刻하여저 政府의 第二回買替에 依한 賣却을 期待하는者도 만흔바 農林當局으로서는 米價가 現在以上 暴騰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코 特히 今米穀年度도殘餘 僅僅一個月에 不過하며 또民間在米도 政府米의 賣却으로 漸次增加하고잇슴으로 此際 米穀統制委員會를 開하고 새로 買替함을 諮問할必要는 업다고보고잇다

歐洲서米國으로 續續金現送
一億弗을突破할듯

【紐育二十四日發聯合】歐洲로부터 米國行金現送額은 九月初以來二十日까지에 九千四百萬弗의 多額에達하얏는데 二十三日도 一千百七十萬弗이나 金現送契約이成立되엇다

人絹染色工聯의 朝鮮에工場計畫
結局은實現不可能

內地人絹染色工聯一行은 朝鮮에온 것을 機會로 工場進出計畫을가지고 各地를 視察하얏는데 實際問題로서 朝鮮의 工場進出은
一、朝鮮內의 氣候로보아 工場設備에 相當한 金額을要할것
二、能率이 豫想外로 不良하야 工女訓練에 時日을要할것
三、結氷期가잇서 染色一本經營은不採算인것
等의 三點이 明白히되얏슴으로 日本內地側의 工場進出計畫은解消된 形勢이라한다。

配定問題協議
朝鮮側決裂覺悟

人絹染色工聯一行은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商工獎勵館에서 朝鮮內 業者와 折衝키로 되엇는데 그要求는
一、自生地로서 朝鮮內에 移入染色하는것의 生産配定(即數量協定)
인데 이에對한 朝鮮側은 條件如何에 依하야生産協定은 反對意向으로 決裂을不辭하는 意肚를 決한모양이다

中旬局鐵發送

九月中旬中의 鐵道局總貨物發送屯數는 合計十七萬四千百十九屯으로 前年同旬에 比하야 一百五十八屯의 增加이다

主要貨物別數量은 如左하다 前年對比增減(△印은減)

米	三六、七三二	四、一七〇△
正租	二、五四〇	五、三六八△
粟	七四	三五一
大豆	七九	一、四五五△
雜穀	四、七九九	一、〇七七△
生果野菜	二、九四〇	五七七△
木材	一七、五三六	四、六六五
薪木炭	三、九三六	九三四△
石炭	三四、〇八〇	一、三〇一△
鑛石黑鉛	一七、三七七	一、六六七
建築材料	一八、九五三	四、三八四
鹽	五、四四一	一、一四五
鮮鹽干魚	八九三	七七七△
繩叺莚	一、六六二	一五五△
肥料	一〇、一二七	六、九七七
其他	四一、一八五	一、〇八五
局用品	一、九〇五	四、七〇三△
合計	二〇四、一一九	一六八

米日爲替暴騰

【紐育二十四日發聯合】賣 二十八弗九十一仙으로 十一仙高이요 買 二十八弗八十仙으로 十一仙高이다

◀東京爲替(二十五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二十五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倉庫業法公布
十月一日施行

【電通東京電話】商工省에서는 前議會를 通過成立한 倉庫法을 公布하얏는데 來十月一日부터 施行키로되어 二十三日附官報로 施行勅令及施行細則을 公布하얏다

米倉在庫續減
僅三十九萬石

米倉會社의 二十日現在 在庫高는 三十九萬五千三百八十八石으로 前月에比하야 六萬七千六百六十一石의減이다(單位石)

釜山	九二、一九六
馬山	七六四
麗水	六二
木浦	三九、五三六
群山	九七、〇四〇
江景	一、九九七
仁川	一一七、八三七
鎭南浦	四五、九五六

朝鮮米宣傳
新京서即賣會

朝鮮貿易協會主催의 朝鮮米宣傳即賣會는 드듸어 來十月六、七、八의 三日間 新京公會堂에서 同七、十一、十二의 三日間은 奉天滿毛百貨店에서 開催하기로되엇다

都市計畫研究會

京城都市計畫研究會에서는 二十五日 午後一時부터 府廳會議室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에 對하야 協議하리라한다
一、市街地計畫令適用
二、國有林野拂下
三、蟲害防止及煤煙防止
四、市街地計畫豫定區內防水工事未完成部分工事施行
五、南大門通路東를 道路中央으로移轉
六、朝鮮都市問題會議開催

南洋의産業開發
『海의生命線』으로

【東京電話聯合】拓務省에서는 南洋開發의 重要方策으로 先般南洋群島開發委員會를 設置하고 農鑛漁業等의 産業을 비롯하야 交通、通信等에 至하는 各種의 調査를 爲하야 南洋群島에 調査班을 各히 派遣하야 實地調査에 當케하고 그結果를 기다려 南洋廳과 協力하야 群島開發의 具體案을 講究하고잇는바 過般林南洋長官이 明年度豫算折衝次 東京으로와슴으로 이를機會로 連日 拓務省關係官과의 間에 協議를 進行하고잇는데 群島開發計畫은 既報와如히 十個年計劃 四千萬圓으로 成案을 어듬을따라 群島開發委員會를 開하고 그 實現에 邁進할터이다

奉天取引所盛況

【奉天】伊에의關係惡化로起因한 海外情勢의好轉 日本株式市場의 白熱的商勢와 滿洲特産市場의活況에刺戟되어 벌서奉天取引界에까지 相當한影響을波及하고잇는데 지난十九日市場에出來高는 長期二千二十株、短期一萬七千八百十株、實物四百株 合計二萬二百三十株로서 昭和七年奉天取引所再開以來 新記錄을 지엇다한다

經濟界消息

●東洋工業會議開催延期‖工政會主催東洋工業會議에 日本內地參加者三十名은 滿洲國主要地를 거처서 十月廿七日 入京할 豫定이든바 十一月六日入京으로 變更한때문에 京城의 東洋工業會議開催期도 十月廿八日豫定을 延期하야 十一月七日 京城公會堂에서 열기로되엇다고

○구라부齒磨口腔衛生部講演、映畫會開催‖大邱、大田各地를巡回하고 京城서는 二十二日早터 二十六日까지 公開中이며 平壤、新義州를거처 釜山을最後로하리라한다

內國郵便爲替受拂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八月中의 內國郵便爲替振出口數는 二十九萬二千七百七十三口로그金額은 八百八十八萬三千百八十八圓이며 拂渡口數는 二十六萬八千九百三十一口로 그金額은八百三十五萬三千三百六十七圓인데이를前年八月中取扱數에 比較하면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一五高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二高
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十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價 在來 [illegible]
◆市中金融
貸金 一分貸 十二圓三十八錢 [illegible]
一分買 十二圓三十三錢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朝新 [illegible] 一〇低
東新 [illegible] 一〇高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 —
고무現 錢先 錢

朝銀買入地金
正貨準備에充當
先高를豫想함인듯

朝銀에서는 從來의 買入地金銀을 日本內地로 現送하야 賣却하고잇섯스나 最近은 全部 正貨準備化하고 잇다 結果朝銀의 地金正貨準備(普通發行券의 二十五%乃至三十二%)는 漸次增加하게되엇다 朝銀이 買入地金銀을 正貨準備化하게되엇슴은 地金의 先高를豫想한 行動이라고보인다

地金係主任談 ‖昨年은 買入하는대로 現送하얏스나 最近은 現送키도하고 그대로두기도 하며 또는其中에는 正貨準備에 充當할것도 잇스나 買入한것을하나도現送치안코 모다正貨準備에 充하는것은 아니다云云

各地糧米不足으로
精米側買氣滿滿
◇…廿九圓乃至卅圓에落札?
政府米拂下前景氣

政府의 朝鮮內所有米 二十二萬石의 拂下는 卅五日에 調査와保證金納入을 맛치고 二十六日에入札하야 二十八日에 決定하기로되엇슨바各地모다 糧米에品貨로 精米側이 사려고 機會를보고잇슨 關係上 豫想外의 高價로 買收되리라고 觀測되고잇는데 價格은 九年産米의 三十二圓에서 二圓下落의 三十圓을最高로 二十九圓以上의約二十九圓五十錢으로되리라고보는便이만라

米倉會社에서
海運業에觸手
◇…벌서鎭南浦에서問題化
民業壓迫이라고陳情

朝鮮米輸送紛糾의 餘燼이 겨우 사라지려하는 이지음 朝鮮米倉會社에서는 最近 鎭南浦에서 海運業에 進出하기로 되어 俄然 一波紋을 惹起하얏다 이는鎭南浦의 米倉支店에서 東京與米問屋指定의 日下部汽船과 特約하야 米倉 出倉으로부터 積込까지의 海上小運送과 代理業務를 兼營하기로된데 對하야 浦助會社인米倉의民業壓迫이라하야 地元鎭南浦에서問題化하야 鎭南浦商工會議所로부터는 二十一日로 今井田政務總監에게對하야 善處를 要望하와다,이에對하야 總督府에서는米倉의 經營方針에對하야 愼重考慮中인바 定款 그他로보아 違反事項이 업슴으로 結局容認하게될 模樣이다 그러나 鎭南浦만에 곳치지안코 各開港地에서 米倉이 上述한 方法에 依하야 海上小運送과 代理業務에 進出하면그波及하는바는 자못 크리라고한다

京城手形交換減少

京城手形交換所十六日부터 一週間 手形交換高는 二萬六千九百八十六枚 一千五百十四萬三千四百十一圓餘로 前週보다 四千八百十枚 卅三萬七千二百六十七圓의各減少이다。

東拓서融資한 小麥處分激增
最近의昂騰으로

東拓에서 今年부터 開始한 小麥長期金融은 最高六十萬圓을超過하얏는데 融資後 小麥價가暴騰하얏슴으로 處分賣却이 激增하야 現在에는 半減하게되엇다

貯銀咸興支店
十月一日開業

貯蓄銀行咸興支店新行舍는 落成되엇슴으로 今月中에移轉하고十月一日부터 同新行舍에서開業키로되엇다

買氣再次擡頭
‖伊에開戰切迫과獨蘇關係險惡으로‖

伊에紛爭解決의 五國委員會和協案을 伊太利가 拒否함을 따라 伊에開戰은 時間問題가 되고말엇고 英國까지 渦中에 뛰어들어서 歐洲第二次 大戰까지 생기지나안흘가? 歐洲天地가 風雨難測의 形勢인데다가『콤민테른』의 赤化工作問題에 對한『히틀러』獨總統의 攻擊演說로 蘇獨關係가 依然 險惡化함을따러 歐洲天地의 惡氣流는 變奏曲을 울니고잇서 如何히 形勢가 險惡할수록 日本으로서는 好感되는材料임으로 一息底迷이던 市勢가 一休 今朝에入하야서는 다시 買氣를呼하야 上向步調를 示하얏섯스나 警戒는 完全히 解除되지안코 今後形勢를 注視하야섯다

投資家側意嚮
事業株前途樂觀

歐洲問題는 伊에開戰、和協如何에不拘코 明白해질것이아니오 暗雲低迷로 말성거리가 不絶할것으로서 今後는 去益 軍備擴張時代로될것인즉 重工業化學方面의株式은 一層 好調가 될것이며 低金利는 日本에서 特히 顯著히 發展할 傾向이 잇슴으로 東新株가튼 投機株에는 波瀾이 잇든래도 事業方面은 漸次 引締될으로서 事業株를 買하는 決코 輕薄한 投機的行動이아니다 그證據로는 短期取組는 新記錄이나 長期는 아즉도 二百萬株에도 達치못하얏고 特히 實株市場에서는 投機派고볼만한것이업스니 事業株의景氣는 이것저것 합루로 爛揚할浮調가 잇는後의일이라고 보는것이 東京의投資家側意嚮인모양이다。

株式 一高一下 揉合

前場昂進 一休 今前場은 爲替暴騰이나 歐洲形勢去益險惡化를 憂慮하야 再昨後引보다東新九十錢高인百五十八圓四十錢 大新一圓十錢高인 九十七圓九十錢 日産一圓二十錢高인 八十四圓丁 朝新不變인 三十圓八十錢、商船新十五圓八十錢、安取 七圓八十錢에寄大引되고 朝取六十六圓丁目着五十七圓丁이잇섯다

▲朝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再落 後場은 平凡寄後 다시 賣物을 呼하야 結局前引에 比하야東新八十錢低인 百五十七圓六十錢、大新一圓五十錢低인 九十六圓四十錢 日産八十錢低인 八十三圓二十錢 朝新十錢低인 三十圓七十錢에 早引

商況 (廿五日)

期米 續騰後에 伸悩

前場續騰 昨後場 阪地三十一圓三十四錢止와共히 二十八圓十五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一休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一錢인 十三丁反落을 報하고 二十九圓十三錢인 僅히二丁低로 場을開始한後 阪地四十八錢으로 返戾함을따라 最高四十八錢이잇고 結局 二十七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伸悩 後場은 二十九圓四十錢에 三丁高로 始場後漸弱步調를 取하야 六錢三十一圓에 弱하고 三十錢에止場하다

賣氣全혀蕭殺 押目買氣流行

當地 先限의 本月最低價는 二十七圓〇四錢으로 困而昂騰途程에入하야 今朝 二十九圓四十八錢인 實로 二圓四十餘丁의 暴騰을하얏스며 그中間途程에서 實方의利喰과 軟派의 狼狽的途轉買物이 現出하야 昂騰一途를 演出함뿐이다 要컨대 去八月十五日現在에依한 日本內地의 稻作 六千百餘萬石의 豫想發表를 示한後 約一個月이나 日本內地의天候가 不良하야 或은 颱風、或은 降雨 又는 冷氣等 가진 災厄이 重疊하여슴을보아 凶作을 免치 못할現象에 빠저들어잇슴것을 豫測할수잇다 그러타고보면 昨年과 如한 三十年來의 大凶作으로 供給不安이 極度에 達한今日에 明年度의需給難을 豫知할수잇다 그럼으로 萬人이면 萬人의腦首가 모다 强化하여슴뿐으로 賣氣는 全혀蕭殺되고 押目買의 人氣가 流行되고 말엇다。今後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騰勢依然繼續
天井은果那邊?

警戒中의 颱風은 昨休日中에九州地方을 掩襲하야 米界의人氣는 殆히 强調하야 二、三十丁의 高氣配를傳하더니 昨夜早터 颱風의 勢力이 七百三十八粍로 衰弱하고 衰하야 一般으로分散하야 그進路는 依然北東으로 今朝 岡山縣下와 能登沖에 잇다는 情報를 接하고 大刹那의 賣物이 輻輳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一錢인 反히 十三丁反落으로 場을開始하엿스며 當地는 二丁低로 初付이엇는바 其後 依然 買氣熾烈하야 阪地四十八錢高로 反高하엿을따라 當地는 三十餘丁이나 反高하엿다 問題의 颱風이 衰弱함에도 不拘하고 騰勢繼續함을보면 今回颱風의 被害도업지안커니와 바람보다도 降雨의被害가 多한모양이다 實로 暴風雨와如한곳에는 五日間이나 大雨가繼續하야 交通杜絶이나 食物全無의狀態임으로 農作物의 被害가 그얼마나 多大할것을豫期할수잇스며 其他地方도 降雨及冷害가 不少한모양인즉 日本內地米作은 凶作을 免치못할現象이라하야 押目買氣가 流行되는觀이잇다。

堂島前場伸悩

【大阪電話】昨日九州에서 豫測한 情報에 依하면 颱風에依한 米作減收百五十萬石을 報하얏스나 其後의 入電은 被害업다고하얏다 그러나 開花期中에 颱風進二十米의 風雨로 全然被害가 업을수 업고 鹿兒島、宮崎、大分方面은 一割乃至一割五分의 被害即三、五〇萬의 減收와 四國方面의 多少被害는 難免할것으로서 注目되엇다 颱風被害가 意外로輕微하야 今朝來客側의 賣物로 押壓되어 伸悩商況을 呈하얏다 天候恢復과 共히 朝鮮의豊作이 또한賣材料의 一로 될모양인데 이미 取組關係에 警戒되어잇고 今朝와如히 颱風被害가 全然輕殺되어 도리어 賣物이 優勢함으로 市勢는 天井에 達한것이라 하는 觀測이 만흔듯하얏다

▲賣方 地場正米側 地場利喰中東側
▲買方 地場朝鮮側 株式側 目前側 來客側

各地正米

京城同價 繼續하야 變方

仁川不變 期米高이나마 賣方이 防禦하야 取引은 全혀안되고 新米는 買方指値低로 意外로 取引이적엇다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釜山保合 期米의 昂騰으로 賣腰强硬이나마 目前拂下를압두고 高價買는 警戒되고 當用의 原料買로 三七五叺의 取引이잇엇는데 角ヲ三等三十二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八錢

大邱强含 賣物稀薄과 期米의 堅調로 市況이强含人氣인 角ヲ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二十五錢

群山硬化 地方出廻稀無로 賣物이 全혀拂底이오 新米는價格關係로 賣物을 將來하나 日本內地注文은 依然히 乏한模樣 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四圓五十錢

木浦焦付 新穀과 拂下待로 買方이 沈默을 繼續하고 場面은 休商態인 丸木多隆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七十錢 雄町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等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南浦暴落 日本內地는 颱風襲來로 期米는 騰勢를不收하나 新米出廻와 目前拂下에押壓되어 賣配一氣로五十錢暴落엔丸ナ龜尾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實物商場取引

▲金剛山電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朝鮮鐵道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川崎造船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昭和人絹 [illegible]

市場小感

株 伊에開戰不可避、蘇獨關係 俄然 險惡化等으로 歐洲不安變奏曲에 依하야 一息이던 市勢는 다시 머리를들어 買上되는모양이나 ▲東株는 商略으로 八朱配當은 問題가업고 昨今은 十月 十一月두달의 週買高를 적게 잡드래도 九分配當 確實과 一割以內이면 商工省서도 反對치안흘것이라는 見解가잇서 樂觀▲그리고 熱狂後의 整理末了라고보는 弱氣는 東新百五十圓割을 잇슴으로하얏이라하며 그런後에 다시 買하면 理想的이리라는 觀測이 업지도안흐나▲前途를 極度로 弱하게보는 사람은 업서진 모양▲開戰이되느냐 안되느냐가 아즉 未判이고 戰局의 範圍와、戰期長短等을 미리 斷言할수업는터이니 섯불른 投機는 삼가는것이 似好일듯

米 休日中의氣配는 二三十丁이나 놉더니 結局 今朝의寄價는 一昨日의止價보다 十三丁이나 瓦落▲此原因은 問題의颱風勢力이 七百三十八粍로 衰弱하엿다는 一因인모양이나 颱風의餘波로被害가 적지안엇슨즉 此를 輕視할수업슬걸 ▲그래서 十三丁反落의市勢가 도리혀 頑强하야 二十餘丁이나 反撥▲ 그러고 當地는 又一層 頑强하야 三十五丁이 奔騰하야阪仁의鞘가 俄然縮少 ▲低價에서 二百四十餘丁이나 反撥하엿스니 此邊의 一反落은 當然▲그러치만 日本內地의米作이 凶作을 免치 못할 形勢이니 押目買의 方針을 樹하기만 不如?▲實로 高價에는 利喰賣物이 現出하고 低價에는 買方의 新規買物이 現出하야 昂騰一途를 演出할뿐▲果然 明年度의 米價가 如何한 高價를 演出할는지는 몰으나 大體 今後米價는 近年의 保勢範圍를 버서나서 昭和四年以前의 市勢를 踏襲할것만을 豫想할수잇는바 果如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朝取取引員
營業內容進呈
金仁梧商店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致候 送料先金要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朝取短期◆ 廿五日 (株式)
朝取 / 同新 / 大新 / 東新 / 日産 / 日魯 / 商船新 / 安取 / 同新 / 鐘新 — 前引 後寄 後引 高價 低價 [illegible]

◆京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朝取短期賣買高◆ ◆國定代引日步◆ —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illegible]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玄米 日本內地白米 朝鮮玄米 朝鮮白米 台灣 — [illegible]

◆朝取期米◆ 廿五日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illegible]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貫入價◆ — [illegible]

米穀 廿五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 [illegible]

商品 廿五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키카코期米◆ ◆綿油沖價◆ ◆大連特産市勢◆ ◆滿洲商況◆ ◆綿粕沖價◆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 [illegible]